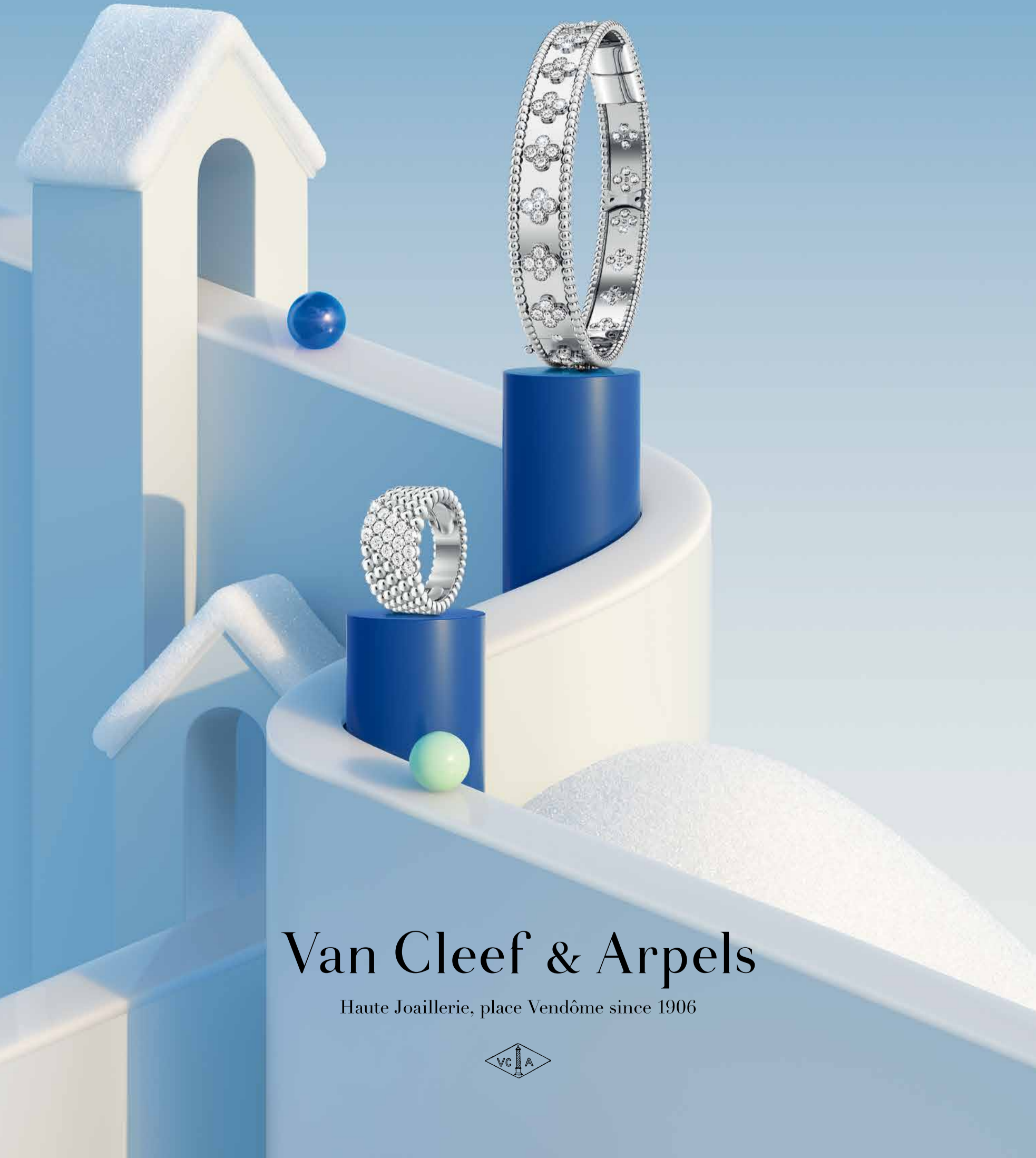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DECEMBER 2023
vol. 262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SUBLIMAGE LES EXTRAITS

강력한 리페어 효과

수블리마지 렉스트레는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와 스웨티아 성분에 깃든 이로운 힘이 담긴 나이트 컨센트레이트입니다.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하며 리페어 효과를 선사하는 탁월한 조합의 포몰러로, 사용한 첫날부터 피부가 충분히 휴식을 취한 듯 송고하게 빛납니다. 1개월 뒤, 새롭게 태어나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은 피부를 경험해 보세요.

CHANEL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38



문의 02 5280 0104



DIOR

LA ROSE DIOR COLLECTION
White gold and diamonds.



SEAMASTER

이번 축제 시즌에는 눈 덮인 달을 배경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세요. 마법처럼 움직이는 시계가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곳, 오메가 헤리티지의 스토리가 항상 곁에 있는 곳입니다. 아쿠아 테라 웨이드는 선물 같은 타임피스입니다. 18K 세드나™ 골드 소재의 38mm 케이스와 사암 컬러 다이얼이 오메가의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갤러리아 명품관 EAST 광고점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인천터미널점 현대 목동점 더현대서울점 대구점 신세계 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대전 아트앤사이언스점 대구점



*Happy
Holi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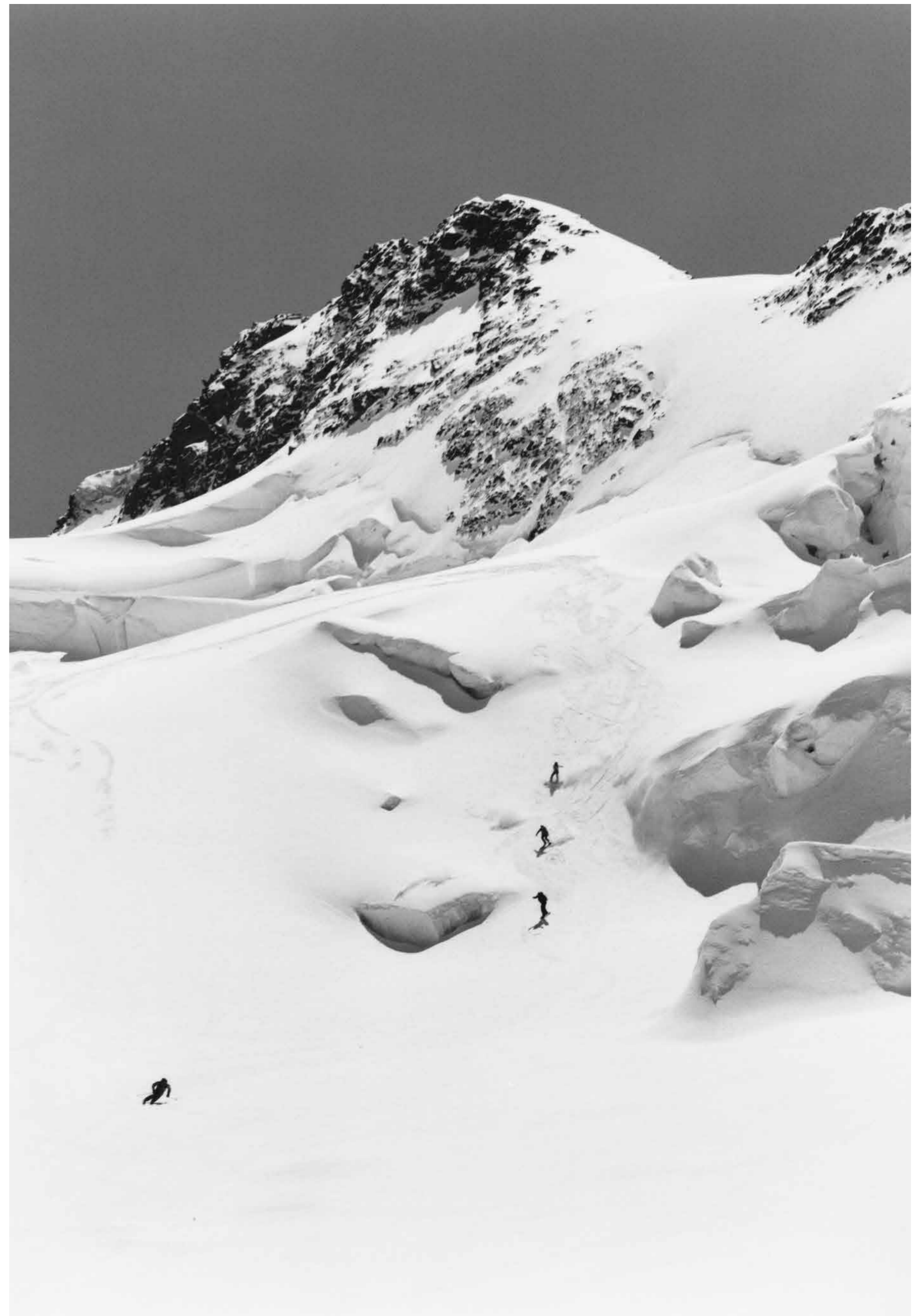
MONTBLANC

MONCLER GRENOBLE

Beyond performance.



Richard Permin, Shaun White, Perrine Laffont and Xuetong Cai for Moncler Grenoble





24



27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컬렉션의 가장 큰 매력은 부드럽고 은은한 빛으로 반짝이는 비즈, 표지인 사진 속 제품은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를리 스위트 클로버 브러시슬릿과 베를리 다이아몬드 링으로, 서정적인 겨울 풍경과 잘 어울려 저출러데이 시즌을 추억하게 할 아이템이다. 문의 1877-4128



16

34

Style 조선일보 Issue.262 December 2023

대표 | 방정오 cj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라온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경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산비 분해·재판 | 리은 인세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0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션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19 **MOST DESIRABLE** 모두가 사랑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철학 아래 궁극의 장인 정신으로 탄생한 최상위 플래그십 세단, 메르세데스-마이bach S 클래스의 새로운 컬렉션.
- 20 **NEW GENERATION**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진보한 기술력을 반영한 예종의 시그니처 뉴 워치로 클래스를 새롭게 정의하다.
- 24 **MAKING IT 'HYBRID'** 해외 방문객을 본격적으로 맞이하던 지난해 행사에 이어 올해 더 짜임새 있게 열린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 2023은 예년에 비해 훨씬 화려해진 가운데, 글로벌화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획이었던 것 같다.
- 27 **AUTHENTIC CHARMS** 도쿄에는 그야말로 럭셔리 호텔 브랜드의 집결지라 할 만큼 무수히 많은 하이엔드 호텔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중에서 굳이 양대 산맥을 꼽자면 현재 대대적인 레노베이션 계획을 발표한 임페리얼, 그리고 더오쿠라도쿄(The Okura Tokyo)인데, 이미 2019년 새 단장 끝에 문을 연 더오쿠라도쿄는 팬데믹이 마무리된 이래 그야말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 28 **FESTIVE CELEBRATION**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지금, 살려는 마음을 기념할 완벽한 선물. 불가리 주얼리는 모던하고 화려하며 자신 있고 우아한 오라를 선사한다.
- 32 **FILL THE SCENTS** 공간을 단순히 향기롭게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 33 **TREASURE OF OCEAN** 상상 속 깊은 심해의 신비로운 생물들이 티파니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태어난다.
- 34 **HOLIDAY WISH LIST** 워치부터 주얼리·패션·뷰티·리빙 아이템까지, 특별함을 가득 담은 홀리데이 추천 선물.
- 56 **WARM STEPS** 겨울 스타일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츠 선택서.
- 57 **TOMBOY'S FANTASY** 에디 슬리만이 재해석한 톰보이 스타일의 룩들이 프랑스 파리의 역사적인 공간 파리 국립 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에 가득 펼쳐진다.
- 58 **GOOD NIGHT** 피부 회복에 최적화된 시간인 밤을 위한 럭셔리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 59 **REVIVE THE SKIN** 사설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스킨케어 라인,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성분과 포몰러의 신제품으로 피부 활력과 리페어 효과를 선사한다.
- 60 **NEW EDITION** 뷰티 케어는 간편하고 확실한 효과가 보일 때, 데일리 루틴으로 이어진다. 훌륭한 뷰티 조력자가 되어줄 디바이스 6.
- 61 **SECRET OF ELEGANCE** 오랜 시간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클래식과 같은 우아한 에티튜드와 아름다움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피아니스트 김지애. 전문성에서 비롯된 차원이 다른 고급스럽고 섬세한 느낌의 그녀와 닮은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컬렉션과 함께한 시간.
- 62 **EDITOR'S PICK** 더 확실한 피부 기초 케어 효과에 은은한 컬러와 향까지 더한 제품 13.

DAMIANI

HANDMADE IN ITALY SINCE 1924



Margherita collection
DAMIANI.COM



고급스러운 프린팅이 돋보이는 실크 소재의 엑스 리브리스 프린지 스카프 80,632만원
에르메스.

대담한 디자인의 18K 옐로 골드 소재의 롤링사이드 스피닝 스바린 핑키링 4백70만원
스티븐 웹스터.

편충반공기를 가진 열대 기후에 적합한 고품질 양모 면직 양모 단양모에 장식된 18K 옐로 골드 브러시 425,500원
L'ORÉAL PARIS.

파티 무드와 잘 어울리는 플로럴 자수 스트라이프 셔츠 2백30만원,
100% 바진 울 소재의 더블브래스트 체크 재킷 4백30만원
모두 에르메스.

for him Selection

이브닝 파티 신에서 당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아이템 리스트.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도시적인 느낌을 주는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블랙 컬러 다이얼의 조합이 특징인 어벤저 오토매틱 42 6백33만원
브레이틀링.



송이 자갈 줄로 재치해 부드럽고 견고한 벨트 69만원
파라카노.



강각적인 옐로 컬러감을 자랑하는 새들 박시(BOX) 백 24.5X19X9.5cm, 가격 미정
디올 뎀.



허우스의 아이코닉한 모노그램이 은은하게 비치는 리틀리퍼 1백50만원
루이 비통.



총 0.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소재의 탭 디올 핑키리퍼
디올 파인주얼리.



100% 울 소재의 슬림 핏 핑크 스트라이프 크라프트 자수 울 트림 정장 재킷
가격 미정
에르메스.



오렌지 컬러의 그라데이션 미러 렌즈를 장착한 안테나.C 01 40만원
켄틀몬스터.



스틸 케이스와 레더 스트랩을 시몬 몬테를 장식한 스틸 핑키링 1백40만원
에르메스.



최대한 프린팅의 강렬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레더 소재의 플러워 브로치 부츠
가격 미정
폴 스미스.



신선한 산도가 살아있어 바블이 여우라 고집스러운 풍미를 자랑하는 벨 에포크 150ml 가격 미정
페리에 주에.

에르메스 02-542-6622 스티븐 웹스터 02-2231-1592 에르메스 02-3446-1969
브레이틀링 02-792-4371 파라카노 02-3430-7854 루이 비통 02-3432-1854 디올 뎀 02-3280-0104
디올 파인주얼리 02-3280-0104 쉐인스 울트 1577-8841 켈틀몬스터 1600-2126 프렉세드 02-514-3721 크롬하츠 02-3443-0055
폴 스미스 02-6905-3456 페리에 주에 02-3466-5701 시세이도 080-564-7700



HERMÈS H08,
TIME, A HERMÈS OBJECT





18K 로즈 골드 소재에 핑크 사파이어를 세팅한 다발 버터플라이 실루엣 함께 핑크 사파이어 펜던트 9백41만원에 그라프.

유니클 무드를 선사하는 핑크 사파이어 글러브 가격 미정 사넬.

영리한 핑크를 선사하는 핑크 사파이어 펜던트 9백41만원에 그라프.

ASSEMBLE 2015 영리한 핑크를 선사하는 핑크 사파이어 글러브 가격 미정 사넬.

영리한 핑크를 선사하는 핑크 사파이어 글러브 가격 미정 사넬.

크리스탈로 장식해 화려한 느낌을 전하는 엑스티라 브라운 글러브 63만원 스와로브스키.

매달릭 나파 가죽과 플라멩코 미강 스티드로 완성한 시편 자수 라스트드 스트랩 핑크스 1백71만원 발렌티노.

고급스러운 장미의 모양이 돋보이는 스티라스 돌보이는 스티라스 4만5천원 알렌비 타카미.

시원스러운 포인트가 귀여운 메탈 헤어 클립 73만원 프라다.

오스와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소재의 클립 1천2백만원에 그라프.

패시비스트를 중심으로 22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이클립 1백71만원에 그라프.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한 스타인리스 스틸 소재 케이스의 미니 돌체비타 장백인원 문진.

양 볼에 선명하고 풍부한 컬러감을 선사해 완벽한 홀리데이 메이크업을 완성해줄 루즈 블러쉬 #211 프레스스 로즈 5.6g 7만9천원에 디올 뷰티.

자연스러운 광택감이 돋보이는 소가죽 소재의 트리아베카 마이클 백, 13x9x4cm, 23만9천원 조이그라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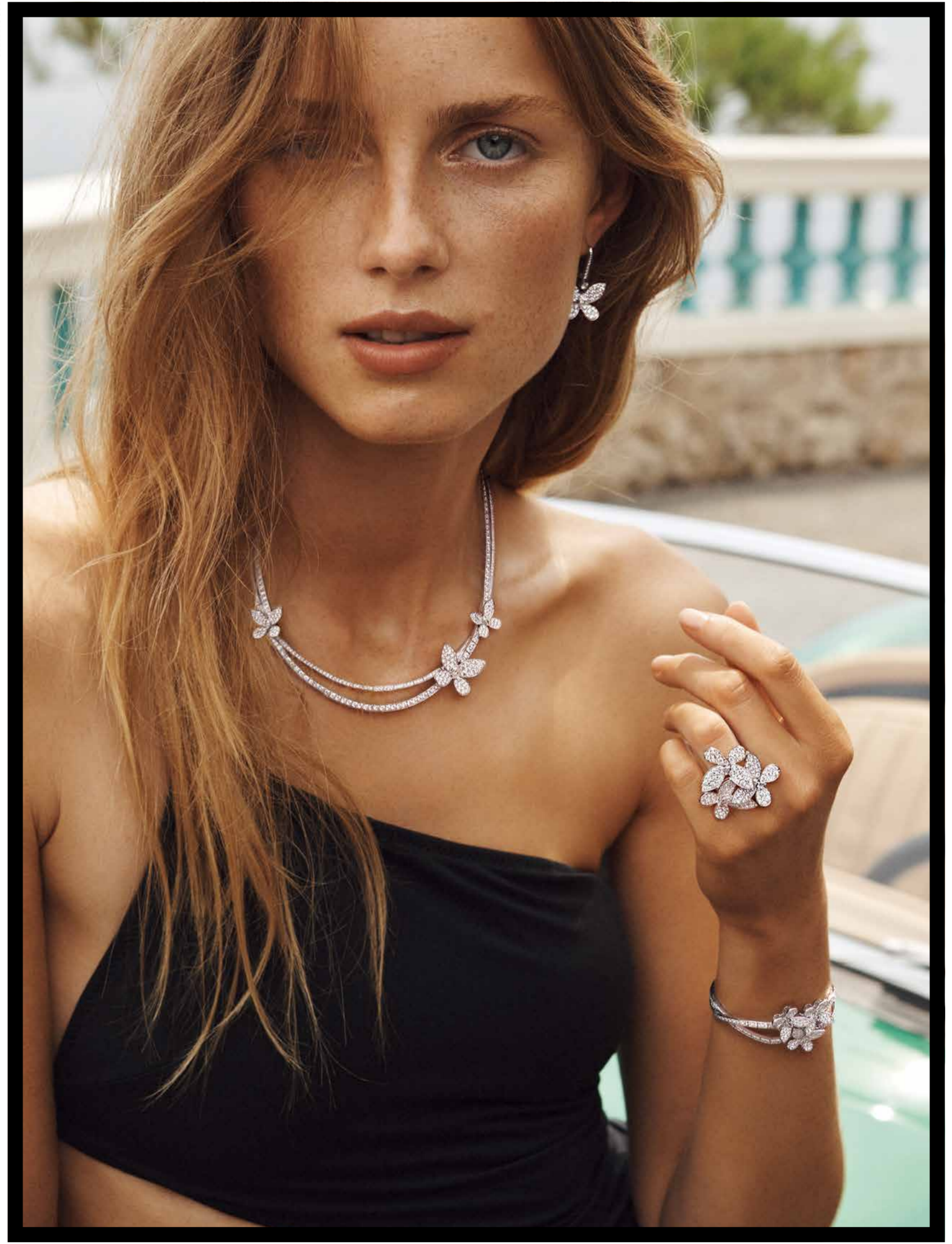
유니클 시퀸으로 영리한 핑크를 전하는 시퀸 라스트드 1백71만원에 그라프.

치련한 그라피 칼라와 화려한 스웨이드 장식의 대조적인 미가 돋보이는 스웨이드 드레스 68만9천원 마쭈.

for her Selection

섬세한 글리터, 볼드한 주얼리, 화려한 컬러감까지, 영롱함으로 무장한 올해의 파티 룩.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GRAFF.COM



BUTTERFLY

GRAFF



WELCOME TO BEYOND

Mercedes-Maybach S 680 4MATIC Haute Voiture Edition

배기량: 5980cc, 공차중량: 2375kg, CO2 배출량: 306g/km, 복합연비: 5.8km/l
 도심연비: 4.7km/l, 고속도로연비: 7.9km/l, 자동/수동: 자동 9단 등급: 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MAYBACH



Most Desirable

모두가 사랑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철학 아래 궁극의 장인 정신으로 탄생한 최상위 플래그십 세단, 메르세데스-마이bach S 클래스의 새로운 컬렉션.



메르세데스-마이bach(Mercedes-Maybach)는 1921년 창립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와 기술력을 자랑한다. '수준 높은 럭셔리(Sophisticated Luxury)'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진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를 통해 지금의 높은 명성을 얻었다. 최근 럭셔리 세그먼트에 많은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와 컬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며 새로운 럭셔리 전략을 재창조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일환이 바로 최고의 세단으로 불리는 메르세데스-마이bach S 클래스에 하이엔드 패션업계의 영감을 결합해 독보적인 럭셔리의 정수를 구현한 콘셉트 카 및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웨이브 아트 센터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공개한 메르세데스-마이bach S 680 4MATIC 오프 부이튀르 에디션(Mercedes-Maybach S 680 4MATIC Haute Voiture Edition)과 메르세데스-마이bach S 680 4MATIC 버질 아블로 에디션(Mercedes-Maybach S 680 4MATIC Virgil Abloh Edition)을 소개한다.

메르세데스-마이bach S 680 4MATIC 오프 부이튀르 에디션

수준 높은 럭셔리를 추구하는 메르세데스-마이bach의 정신에 하이엔드 패션의 정수로 불리는 오프 부이튀르(haute couture)의 영감을 반영해 수준 높은 럭셔리의 정점을 구현한 독보적인 한정판 모델이다. 2022년 5월 선보인 콘셉트 카 콘셉트 메르세데스-마이bach 오프 부이튀르에 새롭고 정교한 디테일을 더해 재탄생시킨 스페셜 에디션으로, 전 세계에 1백50대 한정 출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대 한정 판매된다. 특히 이번 오프 부이튀르 에디션은 패션 디자이너 출신의 메르세데스-벤츠 컬러 & 트림 디자인 총괄 벨린다 곤테(Belinda

Günther)의 주도하에 탄생했다. 기존의 마이bach S 클래스 세단에 고급스러운 투톤 컬러와 고품질 소재, 정교한 디테일을 더한 것이 특징. 외관은 차량 상부와 하부에 각각 노딕 블루와 화이트 로즈 골드 조합의 특별한 투톤 컬러를 칠해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차별화했다. 여기에 외관과 동일한 노딕 블루 색상을 적용한 20인치 마이bach 5축 단조 휠이 아우라져 오프 부이튀르만의 독특한 럭셔리를 강조한다. 또 최고의 장인 정신과 고품질 원단, 정교하고 우아한 디테일로 완성된 인테리어는 오프 부이튀르에서 받은 영감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먼저 패스너에서 영감을 받은 블루베이지로즈 골드색 조합의 고품질 부클레(boucle) 패브릭을 인테리어 전반에 걸쳐 적용했다. 이와 함께 시트와 팔걸이, 허브 대시보드, 스티어링 휠 및 루프 라이닝에 적용한 크리스탈 화이트 컬러는 상단 대시보드 및 콘솔의 짙은 노딕 블루와 대비를 이루며 감각적인 이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라신과 모헤어 소재의 하이-피일(high-pile) 플러시 매트를 적용해 인공함을 더했다. 이외에도 허브와 도어, 헤드레스트 및 헤드라이너 등과 도어 패널, 대시보드, 센터 콘솔 등에 각각 다른 컬러와 소재를 사용해 특별함을 부여했다. 뒷좌석에는 고정형 센터 콘솔을 기본 장착해 널찍한 4인승으로 변신하며, 센터 콘솔과 온도 조절식 더블 컵 홀더, 전동식 리어 센터 콘솔 보관함,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등으로 구성된 일동석 뒷좌석 시트와 가죽으로 마감한 확장형 접이식 테이블, 로즈 골드 컬러의 샴페인 진과 샴페인 병을 수납할 수 있는 냉장고까지 갖췄다. 그뿐 아니라 4차원적 음향 경험을 제공하는 부에스트라® 하이엔드 4D 사운드 시스템과 새로운 차원의 차량 내 오디오 경험을 선사하는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사운드 기술을 기본으로 적용해 풍부한 음질을 제공한다. 기술적으로도 완벽하다. 오프 부이튀르 에디션은 V형 127마력 기술인 엔진(M279)과 9G-TRONIC 자동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 6300마력, 최대 토크 91.7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이어메트 서스펜션은 에어립트 매트릭 시스템을 통해 각 휠을 개별적으로 제어해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탁월한 승차감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외부 소음 및 적외선 차단에 도움을 주는 R 리미티드 글라스와 흡음재 역할을 하는 자스올 타이어를 장착했다. 최대 조향각이 4.5도에 이르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은 고속 주행에서는 안정감을, 저속 주행에서는 기민성을 향상시킨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를 필러스, MBUX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과 증강 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 환경을 조성한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5999만원이다.

메르세데스-마이bach S 680 4MATIC 버질 아블로 에디션

메르세데스-마이bach와 루이비통의 최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오프 화이트™(Off-White™)의 창립자 겸 남상 아트 디렉터였던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

고(故) 버질 아블로(Virgil Abloh)와의 컬라보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독보적인 한정판 모델이다. 2021년 11월 버질 아블로가 갑작스럽게 타계하기 전 완성되어 1백50대 한정 수량으로 전 세계에 출시됐으며, 국내에는 20대 한정 판매된다. 버질 아블로와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최고 디자인 책임자 고든 바그너(Gorden Wagener)의 앞선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선보인 전기 쇼카 프로젝트 마이bach(Project MAYBACH)를 기반으로 한 스페셜 모델로 메르세데스-마이bach의 럭셔리 정체성을 새로운 디자인 언어로 해석하고 기능과 스타일, 창의성의 경계를 확장한 프로젝트 마이bach는 올 3월 2023 F/W 서울 패션 위크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외관과 인테리어 모두 특유의 투톤 색상 조합을 적용했다. 곳곳에 새긴 로고를 통해 외관부터 인테리어까지 버질 아블로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차량 상부에는 반짝이는 흑요석을 연상시키는 글로시한 오피스 블랙을, 허브와 측면, 에디션 모델 전용 휠의 림 테두리에는 신비로운 모래색 조합의 특별한 투톤 컬러를 적용했다. 시트 및 스티어링 휠, 도어, 허브 대시보드 및 전장은 블랙 및 샌드 컬러의 나뭇(nappa) 가죽 소재를 사용했으며, 샌드 컬러의 데코 트림과 스티어링 휠, 도어, 하이-피일 소재의 플러시 매트와 테두리를 모래색 가죽으로 마감하고 메르세데스-마이bach 로고를 새겼다. 피아노 블랙(piano black) 컬러의 센터 콘솔, 리어 콘솔, 헤드레스트, 도어 실 패널 곳곳에 새긴 특별한 메르세데스-마이bach 및 버질 아블로 로고는 마이bach와 버질 아블로 한정판 모델의 품격과 럭셔리를 더한다. 오프 부이튀르 에디션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제어 시스템과 승차감, 안정감까지 동일한 컨디션으로 제공된다. 고속 주행에서도 역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저속 주행에서는 기민성을 향상시킨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5999만원이다. 문의 080-001-1886 메디터 상담원

1 행사장에 전시된 메르세데스-마이bach S 680 4MATIC 오프 부이튀르 에디션. 2 메르세데스-마이bach S 680 4MATIC 버질 아블로 에디션. 3 도어 실 패널 곳곳에 새긴 특별한 메르세데스-마이bach 및 버질 아블로 로고. 4. 4. 지난 10월 28일 서울웨이브 아트센터에서 진행된 VIP 행사 EXCLUSIVE NIGHT 안내용팅 퍼티.



New Generation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진보한 기술력을 반영한 매종의 시그니처 뉴 위치로 클래식스를 새롭게 정의하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대리) IWC 파이롯트 워치 마크 XX 전설적인 마크 11의 후속작으로 매종이 1948년 영국 공군의 항해사와 조종사를 위해 개발했던 정교한 항자기 정밀 시계의 계보를 잇는 워치. 직경 40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화이트 다이얼, 블랙 핸즈를 갖추어 클래식한 무드를 전한다. 1백2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IWC 자체 제작 32111 칼리버를 탑재했다. 8백50만원. 문의 1670-7363

파라데이 루미노 크로노 네이비 셀 혹독한 훈련과 놀라운 업적으로 유명한 특수부대 네이비 SEAL의 SEAL과 합안해 탄생시킨 워치. 반타이탄 느낌을 자아내는 브러시드 브루나이트 스틸 44mm 케이스를 장착했으며 3와 9시 방향에 커운팅이 자리한다. 100m 방수 기능과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P.9200 칼리버를 탑재했다. 1천4백만원. 문의 1670-1936

브라운링 네이비어머 32 매종의 대표 워치이자 시그니처 파이롯트 워치로 불리는 네이비어머를 더욱 슬림하고 직경이 작은 스몰 사이즈로 선보인다. 스틸 케이스에 하늘색 자개 다이얼이 조화를 이룬 성찬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랩크로온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여성스러운 느낌을 배가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792-4371

오메가 피제 로열 오크 셀프와인팅 디자이너 매튜 윌리엄스의 브랜드 1017 ALYX 93M의 특별한 협업으로 탄생했다. 아워 마터와 날짜를 재하하고 우아한 수직의 새틴 마감을 강조해 다이얼을 최대로 간결화했다. 18K 오크 골드 소재의 37mm 케이스와 다이얼, 그리고 브레이슬릿이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을 전한다. 1억5백28만원. 문의 02-553-1351

오메가 시마스터 쿼츠-엑스업 마스터 크로노미터 시마스터 컬렉션 탄생 75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선보인 모델. 스틸 소재의 직경 39.5mm 케이스와 불루 컬러의 다이얼이 조화를 이룬 세련된 멋을 보여준다. 65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하는 오메가 8800 칼리버로 구동한다. 1천만원. 문의 02-6905-3301

카르띠에 탠크 프랑세즈 1996년 문창한 아이콘이 이 모델은 원-피스(one-piece) 메탈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해 특별함을 더했는데, 안체 공학적 접근으로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케이스에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카보숑 컷 합성 블루 스피넬로 크라운을 장식했다. 1천4백만원. 문의 1877-4326

바세몬 콘스탄틴 하스토릭 에디션 1921 1920년대 워치를 복각해 새롭게 선보이는 타임리스, 독창적인 디자인의 쿼츠형 케이스는 직경 40mm이며, 18K 핑크 골드로 재주했다. 온오프 샷브 톤 다이얼에 배치한 11개의 아라비아숫자와 마넛 트레클은 우아하면서도 높은 가독성을 자랑한다. 6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6천500만원. 문의 1877-4306 **에디터 윤자영**

Opening in December
30, Eonju-ro 164-gil, Gangnam-gu, Seoul



SWAROVSKI DOSAN PARK

이시영

손끝의 향기

은은한 향은 물론 보습까지 더한 데일리 핸드크림. (왼쪽 위에서 차례대로) 스쿠 핸드 트리트먼트 스미노코유 프레스시한 베르가모트 향이 은은하게 남으며 피부에 수분을 채우고 윤기를 더한다. 50g 4인5천원. 문의 02-3479-1621 **클리어트 헤즈 어 건넛 어 핸드크림** 브랜드 아이코닉 향수의 향을 담은 핸드크림. 30ml 3인3천원. 문의 1644-4490 **디올 뉴 디올 르 밤** 시아버터, 호호바 오일을 함유해 풍부한 보습감을 전달한다. 50ml 8만원대. 문의 080-342-9500 **클로에 시그니처 퍼플드 핸드크림** 흡수가 빨라 신틸하게 마무리되는 깊이 있는 장미 향의 핸드크림 75ml 6만4천원. 문의 02-3452-1921 포토그래퍼 **최민영** 인턴 에디터 **신정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HOLIDAY MAGIC

루이 비통에서 영감을 유신을 보여주는 홀리데이 시즌 캠페인으로 매종의 아이코닉함이 담긴 선물을 제안한다. 매종의 시그니처 제품을 선보이는 캐비닛 오브 윈드스타부터 겨울 여행을 위한 아이템들을 모아둔 조이오브 트리플, 홀리데이 무드와 어울리는 반짝이는 제품을 모은 시즌 오브 스피클, 겨울 스포츠를 위한 필수품을 소개하는 스토피 어드벤처까지, 이 겨울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을 주저없이 모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중 루이 비통의 유산인 트렁크 바스를 재해석해 모노그램 패턴으로 선보이는 카메라 바스와 스타일러한 이프레 스키 스타일의 아스펜 플랫폼 앵글부츠를 추천한다. 발갯처럼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 소재로 발에 따스함을 전하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다. 카메라 바스 1천2백10만원, 앵글부츠 2백43만원. 문의 02-3432-1854



FANCY LOVE

크리스마스 무드에 걸맞은 예쁜 파우치가 매력적인 큐티 뷰티 아이템.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마리아즈 뷰티 선 위시 매트 브론징 파우더** 크림처럼 블렌딩되는 파우더로 번들거리는 부분을 잡아주면서도 미세 필 입자로 자연스럽고 은은한 광채 피부를 완성한다. 7g 6만1천원. 문의 02-591-5218 **빌리 아일랜드시 아이클리어 No.2** 팜 스타 빌리 아일랜드시가 좋아하는 환경을 그대로 담고 있는 향수로 선유할만한 향과 어울리는 조각상 모양의 독특한 파우치가 인상적이다. 100ml 10만7천원. 문의 080-023-7007 **미우미우 로스트 인 그라이스 오브 투윙스 내추럴 스프레이** 생기 있고 프레스시한 향을 선사하는 향수로 상하 케이스를 추천해 조향 가능하다. 50ml 13만3천원. 상하인 케이스 각 3만2천원. 문의 080-850-0708 **구찌 뷰티 드 보에 콰트로 사바나나 보타운** 보타운 무드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의 골드 컬러 파우치가 매력적인 멀티유즈 제품 4개로 이루어진 메이크업 필러트 콰트로 콤팩트. 6.1g 9만9천원. 문의 080-850-0708 **시마리아즈 뷰티 슬릭 슬릭 립 빌라보즈** 로즈 오일을 함유해 진정 효과를 주는 동시에 미니 사이즈로 가지고 다니다가 좋은 립밤 1g 3만1천원. 문의 02-591-5218 포토그래퍼 **오현상** 어시스턴트 **신정임** 에디터 **성정민**



NEW ELEGANCE

1950년대부터 경의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불가리의 카보숑 컬렉션은 불가리의 전통적인 카보숑 컷을 모티브로 해 탄생했다. 켈스톤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카보숑 컷의 역할에서 착안해 새로 선보인 이번 컬렉션은 골드 소재에 관련된 탁월한 기술력과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형태, 매력적인 볼륨, 부드러운 감촉이 한데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위부터) 로즈 골드 소재의 불가리 카보숑 링 3백90만원, 불가리 카보숑 네크라스 5백35만원, 모두 **불가리**. 문의 02-6105-2120



TOP CLASS

2021년에 시작된 포르쉐와 태그호이어의 파트너십으로 탄생한 가제라 컬렉션. 양사의 역사와 품질, 혁신, 인류라는 가치에 의미를 더한 협업이 가제라 컬렉션과 포르쉐 911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또 한 번 이뤄졌다. 포르쉐 911에서 영감을 얻어 태그호이어 가제라 크로노스프린트 X 포르쉐를 선보인 것. 스틸과 골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며, 다이얼 곳곳에 포르쉐 911의 헤라이트지를 가득 담았다. 가장 눈에 띄는 플래저의 빨간색 선은 단 0.1초 만에 100km/h 가속 가능한 최초의 포르쉐 911에 대한 헌사다. 이외에도 곳곳에 포르쉐를 상징하는 레드 컬러를 담고 아이코닉한 감성을 표현했다. 이번 타임피스에는 정밀성과 속도에 대한 헌사를 담아 안개에서 새겨진 선보는 TH-20-03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케이스 백까지 보호하는 더블 글라스 바스를 적용해 특별함을 더했다. 태그호이어 가제라 크로노스프린트 X 포르쉐 골드 에디션 3만2백52만원. 문의 02-548-6021



FLOWER SPLENDOR

다들 피인주얼에서 연필과 어울리는 주얼리 두 피스를 제안한다. 우선 빅토리드 카스텔란이 자연을 향한 무수 다들의 열정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라 로즈 컬렉션의 신제품, 브로드 로즈 브레이슬릿이다. 장미 줄기와 가시의 유기적인 형태를 표현한 디자인으로 핑크 골드와 화이트 골드의 조합이 돋보이며,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여성스럽고 화려한 멋을 배가했다. 대비되는 컬러감이 특징인 디오레코 이어링은 핑크 골드 소재로 제작했으며, 래커 미감을 활용해 각각의 꽃에 선명한 컬러를 부여했다.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욱 빛나는 관채로 눈길을 끈다. 문의 02-3280-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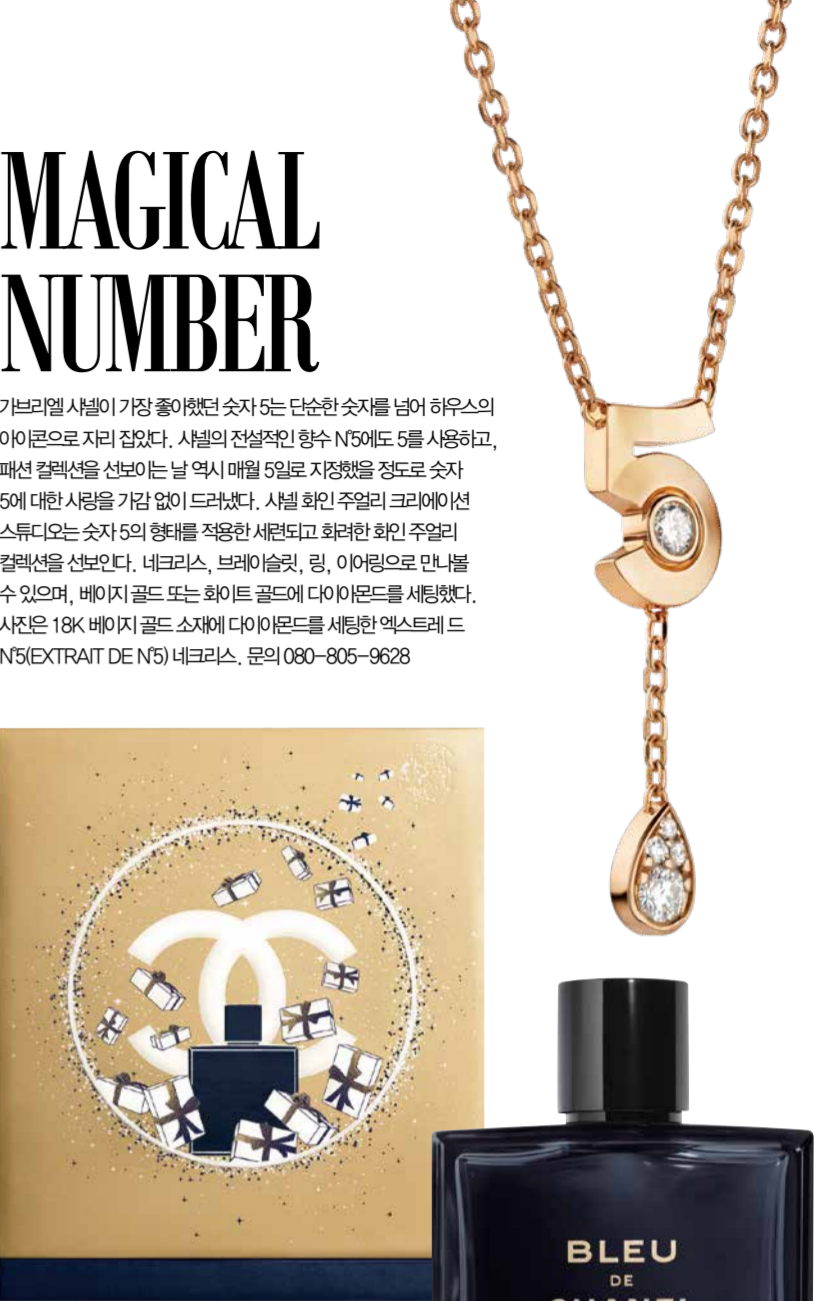
그대 안의 블루

이번 홀리데이 시즌, 샤넬의 대표 남성 향수 블루 드 샤넬 페르팩을 새롭게 출시한다. 블루 드 샤넬 페르팩은 깊고 강렬한 이로마틱 우디 향으로 신선한 향이 고급스러운 뉴질레드나 야산 산들우드의 풍부하면서 세련된 향조로 이어지고, 향에 깊이를 더하며 부드러운 향을 남긴다. 중후하고 카리스마 있는 남성에게 제각각 향으로 우아한 골드 패키지를 더해 품격 있는 홀리데이 선물로 완성맞춤이다. 100ml 22만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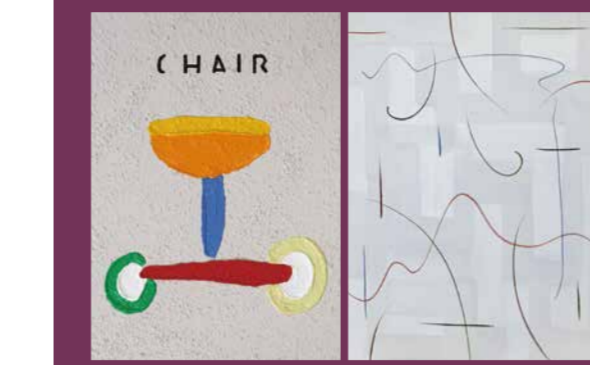


HAIR DRESSING

연말 모임에 나가기 전 급하게 헤어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포인트 액세서리로 센스 있는 스타일링을 완성할 것.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래식한 일크 하니 컬러의 셀러노 시그니처 로고가 포인트인 트리플로리 시닝 헤어 크림 40만원대 **셀러노 바이 에클리어**. 문의 1577-8841. 크리스털과 골드 필로 장식한 메탈 소재의 FV 뷰티스트라스 필러 크림 8만원 **로저 바비에**. 문의 02-3479-6115. 송아지 가죽 소재에 금색 메탈 시그니처 로고를 새긴 크루져 헤어 크림 70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블랙 컬러의 레진 소재를 사용했으며 크리스털 구슬 로고가 포인트인 헤어 집게 핀 가격 **구찌**. 문의 02-3452-1521 포토그래퍼 **최민영** 인턴 에디터 **신정임**



일상의 감성 담은 팝업 전시 '일일시호일'



동시대를 함께하는 작가들의 원화를 비롯해 다양한 리미티드 에디션은 선보이는 팝업 전시 <일일시호일 Everyday is a good day>가 서울 노원동에 있는 명품 가구 편집숍 올던(aldone)에서 펼쳐지고 있다. 카비네트에서 주최하는 이번 팝업 전시는 이우연, 홍순용 작가와 함께하는 첫 듀오 프로젝트로, 작가들에게 전시 제목에 담긴 '좋은 날'이란 특별한 운이 따르는 날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매번 깨닫는 일로 가득한 나날'을 뜻한다. 작업실과 주변 신책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우연은 일상의 오브제를 관찰하고 이를 자신만의 직감과 색채로 표현하며, 홍순용은 조각과 캔버스 위에서 색감과 형태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다 많은 이들이 일일시호일을 추구하는 작가들의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원화와 함께 카비네트가 아티스트와 협업해 완성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놓았다. 예컨대 이우연 작가의 시그니처인 오일 파스텔 드로잉은 자수 테이블 매트와 오벌 플라이트로 재탄생했고, 홍순용 작가의 대표작 The inside pace in the balance와 The move in the balance를 재해석한 캐시미어 블랭킷 에디션, 파인 아트 프린트도 만나볼 수 있다. 따스한 감성을 담은 소품에서 마련된 이 전시는 오는 12월 21일까지, 작가와의 만남(12월 8일과 15일), 클로징 파티(12월 21일) 등도 예정돼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artkabinett.net @kabinett_official

아트 위크 도쿄(AWT) 2023

Making it 'Hybrid'!

도시는 어떻게 플랫폼을 점차 '글로벌하게 만드는가?

해외 방문객을 본격적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올해 더 짜임새 있게 열린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 2023은 예년에 비해 훨씬 화려해진 가운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였던 것 같다. 그만큼 올해의 행사는 처음에는 현대미술을 필두로 한 도쿄의 다채로운 문화 공간과 콘텐츠를 소개하는 '쇼케이스로 내세웠던 정체성을 둘러싼 변화의 외연'이 스텝 행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부티크 페어라 할 만한 세일즈 플랫폼이 처음 등장한' 외연에서 드러난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또 콘텐츠의 내용을 보자면 '아트 허브를 둘러싼 아시아 도시들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미술이든, 건축이든, 디자인이든' 일본적인 것을 세계적으로 포지셔닝하려는 노림수가 반영된 전략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조심스러움과 자신감이 동시에 묻어 있는 AWT의 모습은 어쨌거나 도쿄라는 대도시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AWT Focus

1 아트 위크 도쿄(AWT)의 파트너 브랜드이자 도쿄의 상징적인 역사인 호텔인 더 오키투라 도쿄(The Okura Tokyo) 부지 내 소규모 미술관인 오키투라 미술관에서 'AWT 포커스(AWT Focus)'라는 페어가 열렸다. 2021년 '소프트 론칭'으로 시동을 걸었던 AWT에서 세일즈 플랫폼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Installation view of the inaugural AWT Focus, "Worlds in Balance: Art in Japan from the Postwar to the Present," curated by Kenjiro Hosaka, at the Okura Museum of Art, Tokyo, 2023. 2, 3 AWT 포커스 설치 모습, 4 신진 건축가 후원 차원에서 유명한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기는 리운지(AWT Bar)가 들어선 프로젝트 공간. 갤러리스트 니나가와 아쓰코(Atsuko Ninagawa)와 더불어 AWT의 또 다른 공동 창립자이자 갤러리 사이이 카즈나리(Kazunari Shirai)가 행사를 위해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일부를 제공한 공간이다. AWT 2023 행사에는 건축가 야마다 스즈코(Suzuko Yamada)가 선정됐다. AWT 비에는 아티스트들이 레시피를 만든 쿠키를 만들 수 있다. ※ 1, 4 이미지 제공: Art Week Tokyo

Art Week Tokyo 2023, 다양한 프로그램 속 '세일즈 플랫폼'

일본에서는 여전히 국경을 넘나드는 데 꽤 엄격했던 팬데믹 기간인 2021년 가을 '소프트 론칭' 형태로 첫선을 보인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는 '축제형 쇼케이스'를 표방했다. 누구나 'AWT PASS'라는 모바일 앱을 내려 받아 AWT 로고가 새겨진 전용 버스를 타고(물론 지하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된다) 도쿄 시내의 주요 갤러리와 미술관을 비롯해 각종 아트 스페이스를 두루 섭렵할 수 있는 미술계의 글로벌 행사로 기획됐다. 다케 니나가와 갤러리를 이끌고 있는 니나가와 아쓰코(Atsuko Ninagawa)의 제안에서 시작된 이 행사는 든든한 공적 지원(정부와 도쿄 도청)을 등에 업고 내국인 대상으로만 2만 명의 참가를 끌어모았으므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듬해인 2022년

가을, 규모를 키운 '확장형 버전'으로 드디어 다국적 손님들을 맞이했다. 글로벌 아트 페어의 강자인 아트 바젤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고 해외 VIP 컬렉터들을 초청했으며, 내국인의 호응도 더 이끌어내면서 3만2천 명가량의 방문객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필자는 작년에도 AWT 현장을 찾았는데, 아트 바젤이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페어(fair)'가 어떤 형식이나 규모로든 생겨나리라는 예감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그리고 올 가을을 내놓은(11월 2~5일) 공식 일정으로 개최된 AWT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작은 페어가 등장했다. AWT의 파트너이자 도쿄의 상징적인 럭셔리 호텔인 더 오키투라 도쿄(The Okura Tokyo) 부지 내 소규모 미술관인 오키투라 미술관에서 'AWT 포커스(AWT Focus)'라는 페어가 열렸다. 전후 일본의 이방가르드를 이끈 구타이 그룹의 리더 요시하라 지로, 다나카 아쓰코를 비롯해 1960년대 말 모노하 운동을 이끈 이우환(한국 작가) 등 일본에서 활동하는 작가 64명의 1백 점 넘는 작품이 <Worlds in Balance: Art in Japan from the Postwar to the Present>라는 기획전 형식으로 선보였는데, 시가현 미술관장인 호사카 겐지로가 큐레이팅을 맡았다. 아트 바젤 디렉터 빈센트 드 벨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뮤지엄급 작품을 엄선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반응이 꽤 좋았다. 3회 만에 결국은 아트 페어를 성공적으로 품고 '하이브리드' 성격을 띠게 된 AWT가 내년에 펼쳐질 풍경이 궁금해진다.

53층에 들어선 현대미술관부터 역대급 호크니 전시를 꾸린 MOT까지

아트 위크 도쿄의 등장으로 도쿄 미술계에 생긴 한 가지 의미 있는 변화는 11월 첫 번째 주가 '미술 주간(Art Week)'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아트 위크'라는 개념에 익숙지 않았던 로컬 갤러리업계 사람들에게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외려 직간접적으로 적극 참여하려는 모양새가 은근히 눈에 보여 흥미롭다. 하지만 50개 기관·조직(39개 갤러리+11개 미술관과 아트 스페이스)이 공식 참여하는 골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AWT의 입장이다. 도쿄에는 이미 다수의 명성 높은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지만, '아트 위크'라는 콘셉트는 확실히 집중적으로 감상하면서 통찰력을 얻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올해 AWT 2023 미술관 전시 명단을 보자면 현대미술관 MOT에서 27년 만에 열린 데이비드 호크니의 대형 기획전이 AWT 2023과 동시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 지난해 이후 환회전을 열었던 도쿄 국립 신미술관에서는 이브 생 로랑 전시와 오마기 신지 개인전이 펼쳐졌고, 모리 타워 53층에 자리 잡은 롯폰기 미술관인 모리 아트 뮤지엄에서는 전 지구적 환경 위기를 다룬 기획전 <Our Ecology: Toward a Planetary Living>을 선보였다. 모리의 기획전은 모니카 알 카디리, 피에르 위게, 아핏차퐁 워라세타룬 같은 세계적인 미술가들과 더불어 환경 위기에 대한 경종을 내는 방식으로 올리는 일본 작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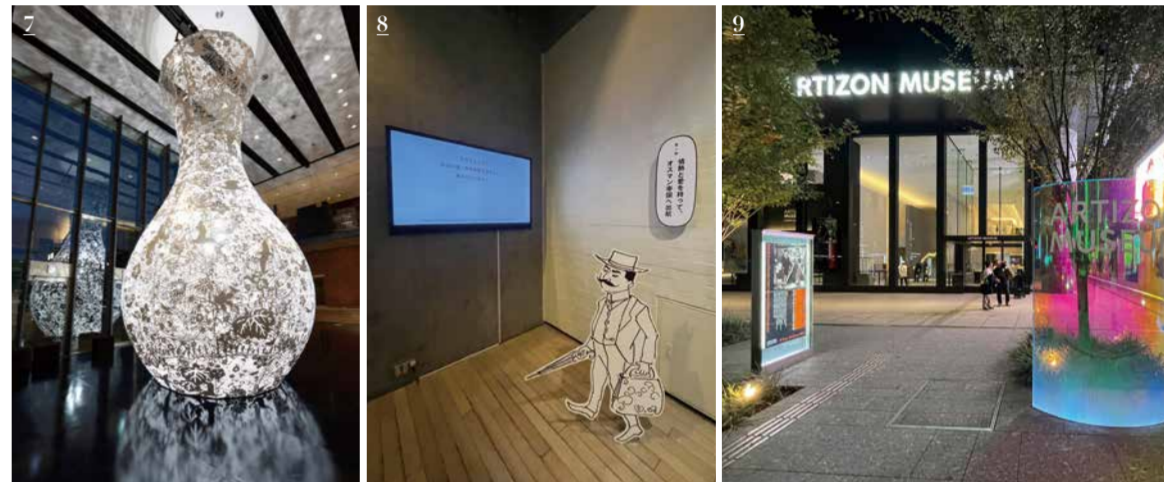
의 조합이 돋보인 전시로 내년 3월 31일까지 계속된다. 도쿄의 변화가 간자에 자리한 아티즌 뮤지엄을 비롯해 올해 도쿄 국립 근대미술관, 와타리움 등 AWT에 공식 합류한 미술관 중 상당수가 일본의 근현대미술 개척을 엿볼 수 있는 콘텐츠 구성을 내놓아 시선을 사로잡았다. 예컨대 와타리움은 19세기 일본과 튀르키예의 관계에 여러모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던 아마다 도라지로의 삶을 조명한 기획전을, 도쿄 오페라 시티 아트 갤러리에서는 오키나와의 역사를 특유의 담담하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담아낸 이시자와 마오의 사진전을 선보였다. 또 타이어 업체로 유명한 브리지스톤을 모태로 한 이시바시 계단이 운영하는 아티즌 뮤지엄은 2023년 타계한 교지 노미야마의 색선을 위시해 일본 작가와 해외 작가의 균형을 살린 소장품 전시를 펼치고 있다.

점차 글로벌을 향해 날갯짓을 하는 갤러리 풍경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 도쿄는 명실공히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메트로폴리스로 그 자체로 강력한 '브랜드'다. 건축, 조경, 미식, 문화 예술, 쇼핑 등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하드웨어와 콘텐츠가 풍부하게 받쳐준다. 이 같은 화려한 위용에 비해 컨템퍼러리 아트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는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AWT가 '쇼케이스'로 출발했고, 점차 '하이브리드' 성격을 가미하고 있는 추세도 아마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신중하고 영리한 전략 아니겠는가. 팬데믹 기간에 미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열기를 띠면서 '아트 허브'라는 명성을 둘러싼 아시아 주요 도시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아시아의 주요 거점 도시들이 저마다의 매력도를 더 끌어올린다는 건 전체 파이를 키우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선의의 경쟁으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을 듯하다. 일본의 상업 화랑들은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을 향한 행보를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방문했을 때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어쩌면 도쿄라는 도시에 어울리는 아기자기한 공간을 나름의 심미적 방식으로 꾸리고 있는 모습이 재미나다. 한국의 현대미술 거장 이우환의 소속 갤러리이기도 한 스키아 더 배스하우스는 도쿄 다이토구에 커다란 목욕탕을 개조한



The Museums



전시 공간을 두고 있고, 일본에 현대미술을 소개한 선구자적인 도쿄 갤러리 + BTAP, 현대 사진의 거장인 스키모토 히로시가 소속된 갤러리 고키나기, 올해 AWT에서 우리나라 단색화 거장인 하종현 개인전(내년 1월 6일까지)을 연 블럼, 런던에서 활동하다 현재 일본에서 활약 중인 테라우치 요코의 인상적인 전시를 선보인 히기와라 프로젝트 등도 꼽을 수 있다. 또 갤러리 페로탕 도쿄와 타로 니슈, 코타로 누카가 등이 들어서 있는 피라미드 빌딩과 도미오 고키야, 슈고야츠 등이 속한 콤플렉스665가 롯폰기에서 지척에 자리 하면서 '갤러리 콤플렉스' 역할을 해 '발품'의 질을 높여준다. 여기서 멀지 않은 새로운 명소인 아자부다이 힐스에 내년 봄 글로벌 메가 브랜드인 페이스 갤러리가 입주할 예정이라 도쿄의 갤러리 풍경은 더 활기를 띠 듯하다(이 마천루에는 모리 그룹에서 꾸리는 새 전시 공간도 이미 들어섰다).



The Galleries

5 일본 현대미술 생애에서 중대한 전환을 지니는 롯폰기 미술관 모리 아트 뮤지엄으로 향하는 길에 놓인 루이즈 부르주아의 거대 조각 '마담'. 6 27년 만에 데이비드 호크니 대형 기획전이 열린 MOT의 설치 모습. 7 도쿄 국립 신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오마기 신지(Shingi Ohmaki) 개인전 설치 모습. 작품명은 'Gravity and Grace'(2016). Installation view, Toyohashi Arts Theatre PLAT, 2016. Photo by Tetsuo Ito. © 2016 Aichi Triennale Organization Committee. 8 19세기 일본과 튀르키예의 관계에 여러모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던 아마다 도라지로(Torajiro Yamada)의 삶을 조명한 와타리움의 기획전 설치 모습. 9 간자에 위치한 아티즌 뮤지엄은 배스하우스 공간 디자인과 동시대의 근현대미술을 아우르는 풍부한 소장품을 자랑한다. 10 프랑스 작가 장-필리프 델로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갤러리 페로탕 도쿄의 설치 모습. 11 유이로 자바 아쓰시(Atsuko Jaba)가 기획한 솔 로프트와 다카마츠 지로(Jiro Takamatsu) 2인전 설치 모습. 12 슈고야츠(ShugoArts)에서 선보인 고키야시 마사토(Masato Kobayashi) 개인전 <About Freedom> 설치 모습. Installation view, 2023. Photo by Shigeo Muto. © Masato Kobayashi, courtesy ShugoArts. 13 도미오 고키야(Tomio Koyama) 갤러리의 신진 작가 데루미리 리카 미나미타미(Rika Minamitami) 개인전 설치 모습. ※ 2, 3, 5, 6, 8~11, 13 photo by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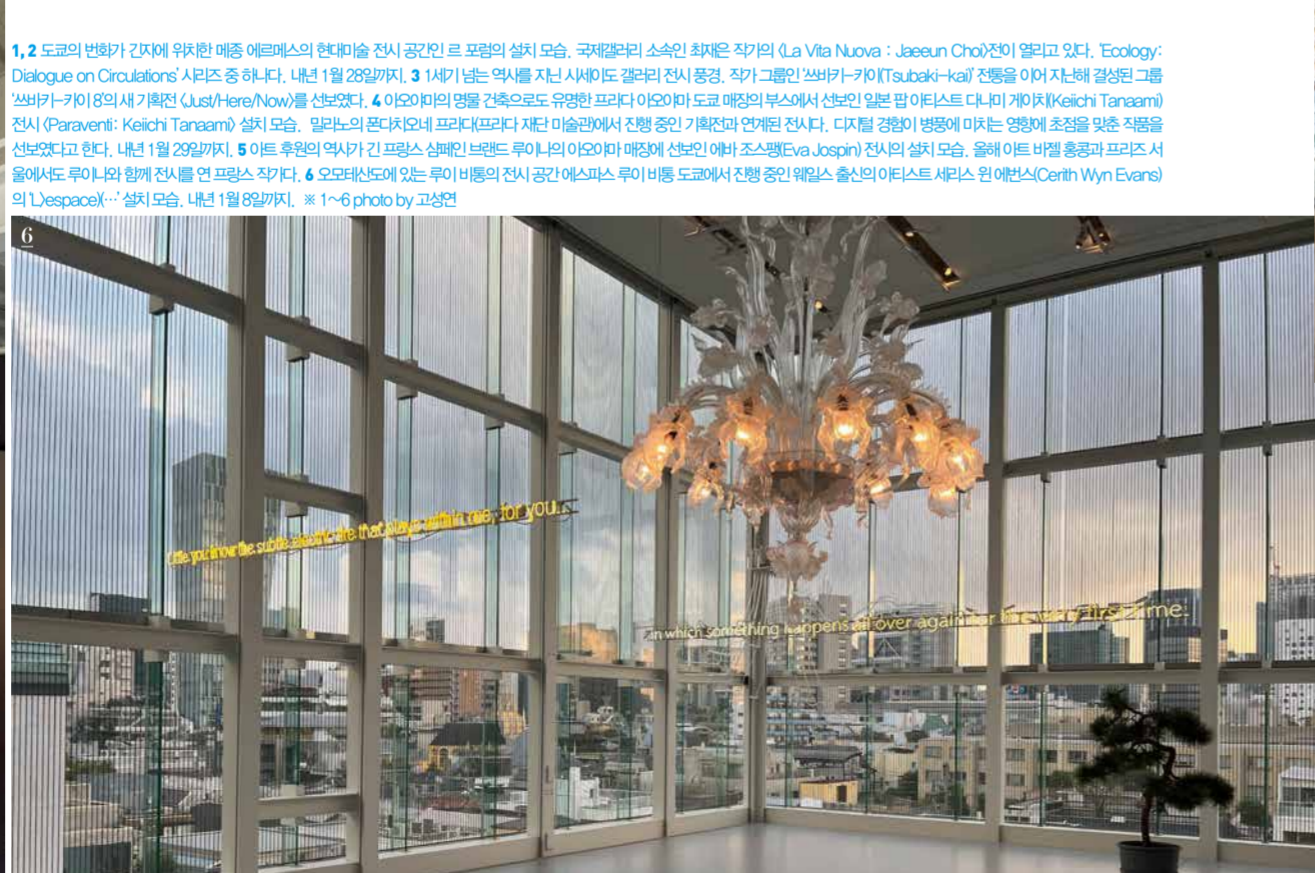


Luxury Brands & Art

'도쿄'다운 자력을 보여주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아트 공간 산업의 예술화 경향은 20세기 초반부터 나타났고, 트렌드에 민감한 럭셔리 브랜드는 문화 예술과 친한 편이라는 사실은 전혀 비밀이 아니다. 아니, 특정 브랜드는 '예술'을 하려고 사업으로 수익을 내나 싶을 정도로, 적어도 겉보기에는 진심을 다하고 내용 면에서도 출중한 컬렉션과 전시 공간을 두루 갖추고 있다. 도쿄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사랑이 물리는 도시다. 럭셔리 분야에서도 웬만한 글로벌 메트로 폴리스에서도 접하기 쉽지 않은 최상위 하이엔드를 위시

해 다채로운 층위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에르메스, 루이 비통, 프라다 등 예술 후원과 마케팅에 두각을 나타내 온 브랜드들의 매장 디자인과 부속 전시 공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기도 할 정도다. 특히 진자에 있는 메종 에르메스 옆에 별도 입구로 들어가도록 동선을 짰던 전시 공간인 르 포럼(Le Forum)은 복층으로 된 공간의 구성이며 규모, 오라가 부러울 만큼 빼어나다(솔직히 소중한 전시 공간이기도 하지만 서울 도산의 아뜰리에 에르메스 공간이 다소 아쉽게 느껴질 정도다). 마침 AWT 2023 기간에 최재은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는데, 이 매혹적인 공간에 전혀 뒤지지 않는 전시의 미학을 뽐내낸다. 생애 위기를 오래도록 차분히 고찰해온 작가의 내용이 담긴 《La Vita Nuova : Jaeeun Choi》는 도쿄를 찾을 일이 있다면 '강추'하는 전시다(내년 1월 28일까지). 또 명품 브랜드들의 건축과 디자인을 보는 즐거움이 넘치는 아오야마로 가면 스위스 건축회사 HdM의 명작으로 꼽히는 프라다 아오야마, 아트 바젤 등 글로벌 현대미술 행사를 후원해온 샵페인 브랜드 루이나 등의 전시 공간과 매장을 함께 둘러볼 수 있고, 가까이 루이 비통 오모테산도 매장 건물 7층에 자리한 전시 공간도 있다. 또 일본 전통의 아트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며 공간을 꾸려온 시세이도 갤러리와 플라 뮤지엄 아비스의 존재감도 잊지 말자. **글 고성연**

1, 2 도쿄의 변화가 가져온 위대한 예술 에르메스의 현대화 전시 공간인 르 포럼의 설치 모습. 국제갤러리 소속인 최재은 작가의 《La Vita Nuova : Jaeeun Choi》전이 열리고 있다. 'Ecology: Dialogue on Circulations' 시리즈 중 하나다. 내년 1월 28일까지. 3 1세기 넘는 역사를 지닌 시세이도 갤러리 전시 공간. 작가 그룹인 '쓰바키-카이(Tsubaki-kai)' 전형을 이어 지는해 결성된 그룹 '쓰바키-카이'의 새 기획전 《Just Here/Now》를 선보였다. 4 아오야마의 명물 건축으로도 유명한 프라다 아오야마 도코 매장의 부스에서 선보인 일본 팝 아티스트 다다미 게이(Keiichi Tanaami) 전시 《Paraventi: Keiichi Tanaami》 설치 모습. 밀라노의 폰다치오네 프라다에서 재탄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과 연계된 전시다. 다섯 번째로 병행에 마치는 영형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내년 1월 29일까지. 5 아트 후원의 역사가 긴 프랑스 샵페인 브랜드 루이나 아오야마 매장에 선보인 에바 조스팽(Eva Jospin) 전의 설치 모습. 올해 아트 바젤 홍콩과 프라다 서울에서도 루이나와 함께 전시를 연 프랑스 작가다. 6 오모테산도에 있는 루이 비통의 전시 공간 에스파스 루이 비통 도코에서 진행 중인 웨임스 출신의 아티스트 시세이도 윈 에번스(Certh Wyn Evans)의 《Yespace》 설치 모습. 내년 1월 28일까지. ※ 1~6 photo by 고성연



세상에 막강한 하드웨어를 갖춘 럭셔리로 통하는 호텔은 많지만 진정한 브랜드 파워와 가치를 누리려면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해야 한다. 그 이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성' 어린 접객 서비스와 매력적인 고급 콘셉트를 뜻한다. 좋은 호텔은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를 한결같이 유지하면서도 해당 지역과 도시, 특정 동네에서 비롯된 고유한 매력을 드러내, 또 하나의 문화로의 관련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 않는다. 더 오쿠라 도쿄(The Okura Hotel)는 주일 미국 대사관이 자리하고 '음악의 전당' 신도리움이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자하람은 긴 자라온과 히야라온을 끼고 있다) 조용한 동네의 작은 언덕길로 올라가면 우뚝 서 있는 고풍 럭셔리 호텔이다(최고 높이가 41층). 원래 1960년대 당대의 자랑한 건축가 다니구치 요시오가 설계한 모더니즘 건축물로 유명했던 이 호텔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대부적인 레노베이션에 돌입했다가 2019년 9월 다시 문을 열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열었다가 반세기 가 훌쩍 넘게 흐른 뒤 또 다른 올림픽 전에 재개발된 절묘한 타이밍을 지닌 호텔이 된 셈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팬데믹의 여파로 빚어진 절망에서 주로 일본 내국민을 손님을 대하다가 작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도쿄로 몰려드는 다국적 고객을 마음껏 맞이하면서 이제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다. 4년 전 재개발한 뒤로 외국 요인들의 숙소로만 아니라 럭셔리 브랜드를 비롯한 문화 예술 행사 플랫폼으로도 인기가 더 많아졌다. 글로벌 VIP 클럽들이 찾는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의 전략적 파트너가 된 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테고 말이다. 또 지금은 자주 회사 체제로 운영되지만, 원래 창립자 기원의 선대 경영자인 오쿠라 기하치로가 1917년 설립한 일본 사립 미술관의 후신인 오쿠라 미술관(Okura Museum of Art)이 호텔 부지 내에 있는데, 올해는 AWT 2023에서 차용한 부티크 페어 'AWT Focus' 전시장으로 탈바꿈해 호평을 받고 있다.

전통과 컨템퍼러리 럭셔리의 미학을 동시에 품다
사실 현재의 더 오쿠라 도쿄가 기획되기 전에 전통이 없지는 않았다. 일본의 전통 사람이 워낙 유별나게 하고, 이 호텔의 건축과 디자인이 워낙 사랑 받기도 했다(자라온과 관련한 재건축 대역에 부딪혔다. 특히 장수를 의미한다는 육각형 조형이 공간을 우아하게 수놓은 1층 로비 라운지에 대한 애정은 남



1 대부적인 레노베이션을 거쳐 지난 2019년 가을 다시 문을 연, 일본 호텔 문화의 정수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럭셔리 호텔 더 오쿠라 도쿄(The Okura Tokyo). 호텔 & 리조트 그룹인 오쿠라의 여러 호텔 중에서 최상위급이다. 고풍 건물로 7층인 호텔은 해리지 워터(17층)와 프레스티지 타워(41층) 등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객실 수 599개, 각각 컨템퍼러리 강성과 일본 전통의 감성이 현재적으로 스며들어 있다. 새로운 해리지 워터의 1층 라센스 로비 공간. 2 호텔 건물 앞에 분수를 만든 채 자리한 오쿠라 광장의 모습. 광장 건너편 최상위 사립 미술관인 오쿠라 미술관(Okura Museum of Art)도 자리하고 있다. 3 해리지 워터에 있는 객실트윈 룸 모습. 해리지 워터 객실트윈은 마-바 무료 제공, 버블러 박스에 넣으면 피트니스 시트 등 여러 특권을 누릴 수 있다. 4 25m 길이의 레인풀 5개 구별 수영장과 도쿄 타워 등의 전경을 누리며 빼어난 전망을 자랑하는 마-바를 받을 수 있는 스파와 대용량, 피트니스 센터 등이 26층과 27층에 자리한다. 언덕 위에 있는 호텔 건재는 이집트 신전에도 있는 11월을 비롯해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를 유지하는 경사가 있음으로 7월이다. 5 우아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20세기 중반 로비 디자인. 기존 디자인에 대한 도쿄 사람들의 애정이 워낙 지극히 높았기 때문에 호텔이 지어지던 때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도쿄에 따스하게 감싸주는 육각형 조형은 물론 러커 칠한 테이블과 의자, 꽃병에서 영감을 받은 테이블 등 의욕이 가득하다. 6 도쿄의 럭셔리 호텔이지만 전통을 모호하지 않는 호텔이다. 더 오쿠라 도쿄 역시 객실에 따라 다양한 아름다운 뷰를 선택할 수 있다. 도쿄는 11월 따뜻한 날씨를 유지하는 경사가 워낙 높고 산악도 많다. 7 풍성하고 일본 조식 뷔페로 유명한 오치노키(Orchid) 레스토랑을 비롯해 야마노타도 노면이 갖춰진 가이세키 코스부터 사치시, 스키와 일본식 피인 대접을 즐길 수 있는 오모테사토(오모테사토) 야마노타(야마노타) 레스토랑, 놀라움 가득한 프라다 레스토랑(프라다)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있다. 또한 가이세키 코스부터 사치시, 스키와 일본식 피인 대접을 즐길 수 있는 오모테사토(오모테사토) 야마노타(야마노타) 레스토랑, 놀라움 가득한 프라다 레스토랑(프라다)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있다. 홈페이지: <https://theokuratory.jp/en/> ※ 1~6 photo by 고성연



달랐던 것 같다. 결국 선의 대를 이은 호텔의 재설계와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많은 건축계 거장 다니구치 요시오(다니구치 요시오)의 아들인 호텔 로비의 모습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더 오쿠라 도쿄는 전통과 컨템퍼러리를 아우르는 럭셔리의 정수를 품고 있는 집을 내세우고 있다. 호텔은 크게 느슨하게 연결된 두 동으로 나누어 있는데, 굳이 디자인으로 구분할 것만 로비 라운지를 본 프레스티지 타워가 좀 더 컨템퍼러리의 감성을 품고 있고, 해리지 워터는 일본 전통의 감성이 현대적으로 담겨 있다(예컨대 객실에 공간의 한 면을 따라 길게 이어진 방식 같은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 욕실에는 스타일 샤워도 있다). 고풍한 호텔 건물과 낮은 미술관 건물 사이에는 부지의 중심이 되는 광장이 놓였고, 청신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현대식 연못이 자리한다. 도쿄 시내가 한눈에 보일 만큼 유려한 전망을 자랑하는 도상에 위치하지만, 호텔 주변을 걷는다는 것은 산책 길에서 유유자적 걷는 것도 좋은 고풍한 휴식과 번잡함을 잊게 해주기도 한다. 조식 뷔페가 푸짐하기로 소문나 있고, 가이세키 요리와 사시 등 전통식을 갖춘 이마지토와 하류 전 만드는 프랜차이즈도 유명한 누벨 에포크 등 미식 메뉴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25m 길이의 레인풀 5개 구별 수영장, 대용량 스파, 아주 숙련된 승사의 전문 인력이 대기 중인 스파에도 타워 전망이 보이기도 한다(타워) 등 웰니스 시설도 더 오쿠라 도쿄의 자랑이다. 럭셔리 호텔을 많이 경험하면 누군가가 묻는다면 아마도 이 호텔의 최대 장점은 '편안함'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싶다. 처음 발을 들여놓은 순간에도 많이 낯설지 않은, 쾌적하고 정갈하고 우아하지만 과하지 않은 럭셔리라고 할까. 아마도 이 특유의 인력원은 30년 근무자라고 소개할 때 살짝 놀라자. 40~50년 경력자가 수두룩하며 미소를 띠는 호텔 직원의 자부심 어린 담에서 알 수 있듯, 진정한 어떤 태도와 생활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글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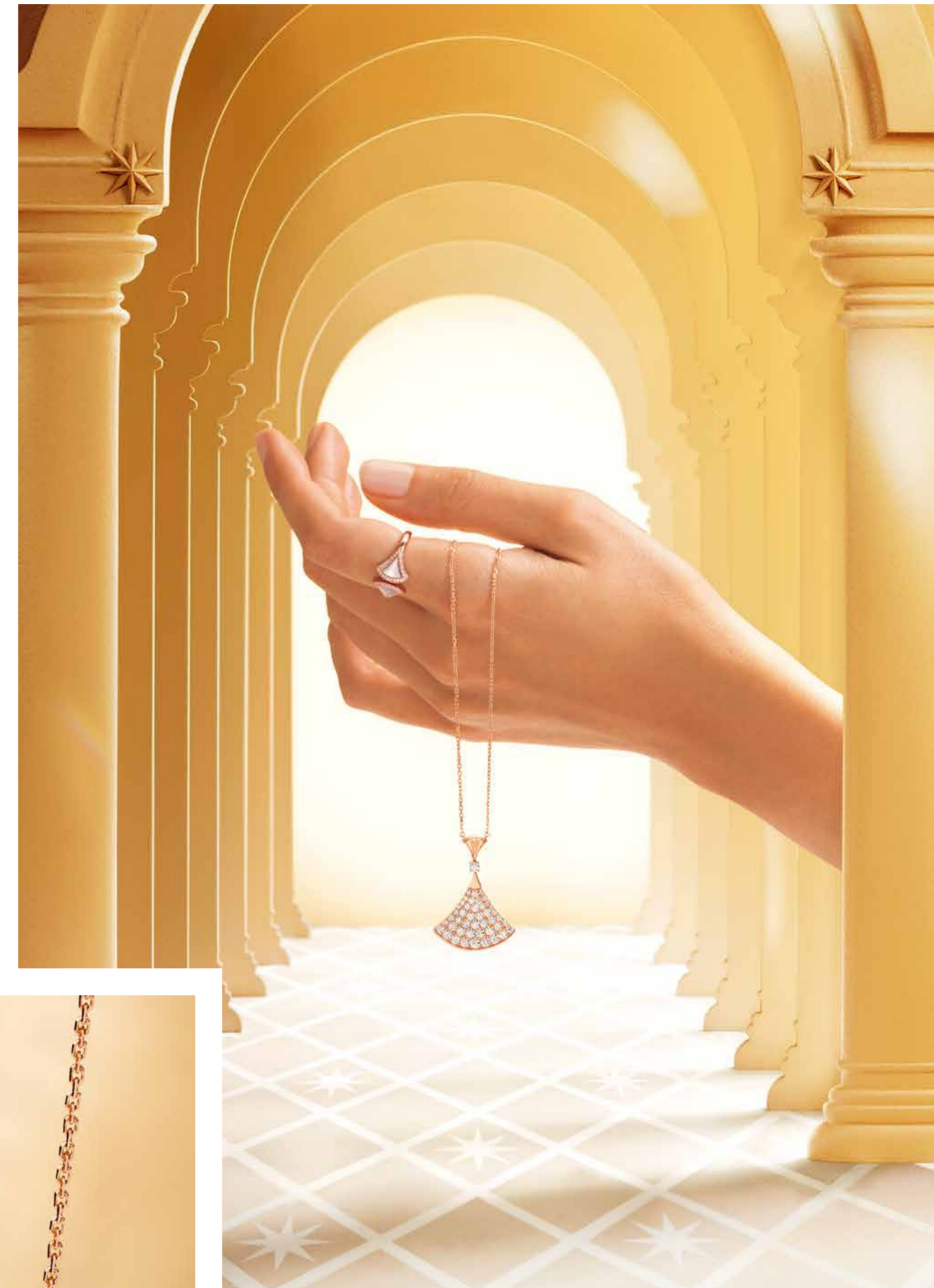
The Okura Tokyo (더 오쿠라 도쿄) Authentic Charms

도쿄에는 그야말로 럭셔리 호텔 브랜드의 집결지라 할 만큼 무수히 많은 하이엔드 호텔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중에서 곳곳에 존재감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지켜내는 전통 일본 럭셔리의 진수를 보여주는 유서 깊은 호텔들이 있다. 굳이 양대 산맥을 꼽자면 현재 대대적인 레노베이션 계획을 발표한 임페리얼, 그리고 더 오쿠라 도쿄(The Okura Tokyo)인데, 이미 2019년 새 단장 끝에 문을 연 더 오쿠라 도쿄는 팬데믹이 마무리된 이래 그야말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일 시 묵었고, 앞서 도쿄 올림픽 기간에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체류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VIP 목록이 상당할 길어진다. 지난해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 행사를 접하면서 더 오쿠라 도쿄에 처음 묵었는데, 어쨌든 이 호텔이 도라노론 일대의 풍경을 바꿨다는 얘기까지 들지는 않으나 있었다. 올해의 AWT는 호텔의 이모저모를 더욱 자세히 탐색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로즈 골드에 총 1,749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블랙 오프스루 범
 눈을 표현한 세르펜티 이어링
 3천2백50만원, 화이트 골드에 총
 8.21캐럿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세르펜티 네크리스 가격 매장 문의,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세르펜티 링 각 1천2백20만원,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블랙 오프스루 범 눈을 표현한 세르펜티
 브레이슬릿 가격 매장 문의 모두 **불가리**.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비제로원 링 2천3백90만원,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한 줄 파베 세팅한 비제로원 링 6백95만원,
 로즈 골드 비제로원 링 3백90만원 모두 **불가리**.



로즈 골드에 마더오브펄과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다바스 드림 링 5백35만원,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바스 드림 네크리스
 3천3백30만원 모두 **불가리**.



로즈 골드에 레드 커널리언과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다바스 드림
 네크리스 5백35만원, 로즈 골드에 그린
 말라카이트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바스
 드림 네크리스 5백45만원 모두 **불가리**.

Festive Celebration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지금,
 설레는 마음을 기념할 완벽한 선물.
 불가리 주얼리는 모던하고 화려하며
 자신 있고 우아한 오리를 선사한다.



(위)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세르펜티
 브레이슬릿 4천5백20만원 **불가리**, (아래)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데미
 파베 세팅한 세르펜티 브레이슬릿 1천4백80만원 **불가리**.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세로판티 브레이슬릿 4천9백20만원,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데미 파베 세팅한 세로판티 브레이슬릿 1천3백60만원 모두 불가리.



로즈 골드 비제루원 브레이슬릿 5백85만원, 비제루원 링 1백65만원, 로즈 골드에 카탈리안과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다바스 드림 네크리스 5백35만원 모두 불가리.



옐로 골드 비제루원 링 4백48만원,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비제루원 링 1천4백30만원 모두 불가리.



마더오브펠라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로즈 골드 소재의 다바스 드림 이어링 4백42만원,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마더오브펠라를 매치한 다바스 드림 네크리스 9백90만원,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바스 드림 네크리스 3천9백30만원 모두 불가리.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마더오브펠라를 다한 다바스 드림 네크리스 9백90만원,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다바스 드림 네크리스 9백35만원 모두 불가리.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비제루원 링 2천9백30만원 불가리. 문의 02-6105-2120

(왼쪽부터) 호텔도슨 품넘버792 나이트 캔들, 풀엔베릭 스프레이 구매 시 한정 수량으로 함께 제공하는 미니 캔들, 체스몬 나이트 빛을 연상시키는 귀여운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작은 사이즈로 여행 시 갖고 다니기에도 안성맞춤. 가격 미정. 문의 02-3779-7244

호텔도슨 풀엔베릭 스프레이 헬럼부다셀레저를 머무는 공간이나 패브릭에 분사해 향을 더하는 스프레이로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향이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준다. 달콤한 블랙 체리와 풀링이 머스크와 아우러져 고급 호텔에서 나는 향과 같이 풍성하고 목직향 향기를 전달한다. 50ml 3만9천원. 문의 02-3779-7244

온도 by 샵터원 화이트 세이지 스머지 스틱 불로 태워 향을 내는 스머지 스틱으로 스파이시함을 가미한 아로마가 특징인 화이트 세이지로 이루어졌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공간과 영혼의 클렌징을 위해 사용한 신성한 식물로 집 안의 부정적인 공기를 내보내고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티잔 인센스 스틱과 세트 1개 2만6천원. 문의 02-3447-8001

트루통 디퓨저 파프르 드 엘 카테르 프랑스어로 달걀이라는 뜻을 지닌 재물명처럼 하얀 달걀 모양이 모던한 감성을 전하는 디퓨저. 디퓨저 용액을 붓고 리드 스틱을 꽂으면 공간을 은은한 향으로 채운다. 300ml 45만원. 문의 02-6905-3324

토일렛페이퍼 뷰티 프리드런스 디퓨저 루 오브 스페이드 토일렛페이퍼에서 디자인한 독특한 감성의 패피지가 돋보이는 디퓨저로 공간에 아이코닉한 감성을 전한다. 재스민과 세이지를 섞은 플로랄하면서도 은은한 향으로 공간을 향기롭게 해준다. 500ml 16만9천원. 문의 1644-4490

디티크 프리미엄 캔들 메르 블랜드 디티크 캔들 탄생 60주년을 맞이해 출시한 캔들 컬렉션 중 하나로 아이코닉한 오벌 형상으로 고안한 유라벨이 인상적이다.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이 콜라드주 사막 고원지대에 세운 고도시 메사 베르데의 향을 담았다. 270g 37만2천원. 문의 02-3479-6049

신티리아 노벨라 칸달라 프루피티라 프리지아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향초로 최고 품질의 성분으로 제작해, 화학적이지 않고 이질감 없는 자연스러운 향을 선사한다. 심플한 디자인에 금색 핸드 페인팅으로 세진 로고 장식도 모던하면서도 감각적인 느낌을 부여한다. 540g 12만9천원. 문의 1644-4490

아스타에 드 빌라트 세루아 인센스 홀더 세라믹 소재의 사람 손 모양 인센스 홀더로 심심한 공간에 감성을 불러넣는다. 148 X 90 X 85mm 사이즈의 오브제 70만8천원. 문의 0507-1328-7098

오피신 유니버설 불리 알라바스트 스톤 디퓨저 불이나 증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깊은 향을 전달하는 스톤 디퓨저. 향이 나는 오일을 돌 오브제에 뿌리면 하루 종일 은은한 향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악취 제거도 좋은 향기를 남긴다. 콤팩트한 사이즈로 신발장이나 옷장에 두어도 좋다. 5ml 12만8천원. 문의 1544-5114

호텔도슨 밀로스피 스탠드 작은 액자 형태의 석고 방향제로 석고에 스며든 은은한 향이 공간에 퍼지며, 향이 다졌을 경우에도 다른 향수나 방향제를 뿌려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소품이나 주얼리 트레이로 활용해도 좋다. 풀엔베릭 스프레이와 세트도 구입 가능하다. 가격 미정. 문의 02-3779-7244 에디터 **성정민**

treasure of Ocean

상상 속 깊은 심해의 신비로운 생물들이 티파니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태어나다.



티파니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잔 슬림버제(Jean Schlumberger)의 상상 속에 머물던 환상적인 바다 생물이 현실이 되었다. 티파니가 선보인 2023년 블루 북 컬렉션 아웃 오브 더 블루(Out of the Blue) 가을 컬렉션이 바로 그 주인공. 티파니 주얼리의 수석 예술감독 나탈리 베르데유(Nathalie Verdeille)가 디자인한 첫 번째 블루 북 컬렉션의 연장선으로 바다를 향한 잔 슬림버제의 열정과 사랑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가 바라보는 바다를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컬렉션의 피스들은 잔 슬림버제의 디자인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수중 생물을 현대적이고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흔히 바다의 꽃으로 묘사되는 말미잘 테마는 말미잘의 민첩성을 주얼리에 담기 위해 메종의 혁신적이고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다이아몬드, 블루 쿠프리안 엘바이트 투르말린과 터키즈가 우아한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다이아몬드를 역방향으로 세팅하는 메종의 특별한 세공법으로 마치 같은 질감을 표현한 것.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상상 속 바다를 더욱 뚜렷하게 표현한다. 브레이슬릿에는 메종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적용해 편안한 착용감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제품으로는 10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블루 쿠프리안 엘바이트 투르말린을 세팅한 조개 네크리스, 23캐럿 이상의 언인핸드 오렌지 사파이어를 세팅한 물고리지리 테마의 네크리스, 37캐럿 이상의 언인핸드 퍼플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산호 네크리스, 그리고 22캐럿의 언인핸드 그린 큐브 엘바이트 투르말린과 다이아몬드로 제작한 불가사리 네크리스가 있다. 이번 2023년 블루 북 아웃 오브 더 블루 가을 컬렉션은 글로벌 하이 주얼리 이벤트에서 독점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02-6250-8620 에디터 **윤지영**

1 총 67캐럿의 블루 쿠프리안 엘바이트 투르말린과 터키즈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블루 북 컬렉션 블루 쿠프리안 엘바이트 투르말린 펜던트. 2 총 77캐럿, 4개의 쿠션 컷 블루 쿠프리안 엘바이트 투르말린이 청량한 느낌을 배가하는 블루 북 컬렉션 블루 쿠프리안 엘바이트 트루말린 이어링. 3 총 12캐럿의 오벌 차보라이트를 중앙에 세팅한 블루 북 컬렉션 차보라이트 링. 4 18K 화이트 골드 총 57캐럿의 2개 오벌 블루 쿠프리안 엘바이트 투르말린을 포인트로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블루 북 컬렉션 블루 쿠프리안 엘바이트 투르말린 이어링. 5 총 56캐럿의 20개 언인핸드 파파라치 핑크 사파이어, 총 28캐럿의 2백20개 마스드 컷의 파파라치 사파이어, 그리고 다이아몬드, 블루라이트, 핑크 사파이어를 세팅한 블루 북 컬렉션 언인핸드 파파라치 사파이어 브로치.



Fill the Scents

나만의 공간을 단숨에
향기롭게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이시트트 스튜디오

OMEGA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타임피스,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컬렉션. 아서 번의 달 착륙 미션을 완수한 전설적인
 크로노그래프로 오메가의 선구적 정신을 담고 있다.
 4세대 스피드마스터에서 영감을 받은 케이스 지름 42mm의
 문워치는 18K 로사인™ 골드 소재로 제작했으며, 태양광
 패널을 새긴 PVD 스틸 다이얼과 문워치 스타일 핸즈를 마주해
 아이코닉한 감성을 다졌다. 오메가 세라클라우드™ 타카미터
 스케일을 장착한 그린 세라믹 베젤 링과 딥 그린 다이얼이
 돋보이며, 오메가 코-엑스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라버
 3861로 구동하는 문워치 프로페셔널 코-엑스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42MM 5천9백40인원대 오메가.



holiday
WISH LIST

워치부터 주얼리패션뷰티-리빙 아이템까지,
 특별함을 가득 담은 홀리데이 추천 선물.
 photographed by **yi joo hyuk**

애프터 샵, 오지엔, 이시스트로 신영원

1994년부터 시종일관 초월해 사랑받아온 오메가 드 빌
 프레스티지 컬렉션의 3세대 모델, 클래식한 디자인과
 우아하고 세련된 감성을 자랑한다.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지름 34mm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베젤과
 화이트 자개 다이얼이 특징으로 여성스러움을 한껏 강조했다.
 디스플레이에는 옐로 골드 도금 핸즈와 교차 배열한
 로마숫자, 다이아몬드 마커로 디테일을 다졌다. 은은하게
 빛나는 올리브 그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마무리했으며,
 오메가 마스터 코-엑스얼 칼라버 8800으로 구동하는
 드 빌 프레스티지 코-엑스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34MM
 3천50인원대 오메가, 문의 02-6905-3301

wish list
WATCH



1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스케이트 브러시 패턴을 완성해 주얼리적 감성을 부여한다. 지름 15.5mm 케이스의 여성스러운 감성을 더하는 포부르 플라워 워치 1천백27만원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2 스퀘어모양으로 완성한 상급 플라잉 투르비옹 RD510SQ 칼라를 장착한 워치로 지름 36mm의 핑크 골드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베젤, 레드 엘라게이터 스트랩으로 화려함을 더한 엑스칼리버 36 스칼라본 플라잉 투르비옹 247천9백만원 **로저 두비유**. 02-3479-1403 3 18K 핑크 골드 합금인 에버로즈 골드 소재의 지름 31mm 케이스로 유니크한 감성을 전하며, 초콜릿 컬러 스텔이 파니시 다이얼을 매력에 온전한 우아함을 선사한다. 베젤과 인테스를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마무리한 오아스터 퍼펙트워치 레이다-데이트자스트 5천9백7만원 **롤렉스**. 02-545-4855 4 지름 39mm의 18K 3N 옐로 골드 소재 케이스에 도금 처리된 버티컬 브러시 다이얼을 매력하고, 3시와 9시 방향에 블랙 아저트 마진 크로노그래프 커튼을 매력에 감칠맛을 더하는 브랜드 아이코닉 워치 7리타 석세스 2천9백39만원 **타그 호이어**. 02-548-6021 5 새로운 인종 칼라버 LB44, 4와 칼라 세라믹 인테스로 강화한 베젤이 특징인 스파릿 컬렉션 타임피스. 지름 39mm 18K 옐로 골드 케이스와 초콜릿 브라운 세라믹 다이얼이 고급스러운 감성을 부여하는 스파릿 줄루 타임 골드 5백90만원 **롤렉스**. 02-3479-1940 6 아이코닉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지름 34mm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케이스에 총 2백76개, 다이얼에 총 8백79개의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한 로열 오크 셀프와인팅 가격 미정 **오데 마피에**. 02-553-1351 7 클래식 향공 워치를 여성스럽게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지름 36mm 스텔 케이스에 온전한 화이트 자개 다이얼로 우아함을 강조했으며, 강화한 레드 엘라게이터 스트랩으로 마무리해 개성을 더한 나비타이머 32 5백50만원 **브라이틀링**. 02-792-4371 8 전설적인 스완리 라인업의 남성다운 황금색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라피티드 에디션. 빙하 패턴과 얼음의 푸른 색조를 담은 스무티 골드 컬러에 패턴 다이얼이 특징인 몽블랑 1858 지오스피어 제로 옥시젠 시무스 볼 익스플로레이션 라피티드 에디션 1900 1천600만원 **몽블랑**. 1877-5408 9 유쾌한 감성이 돋보이는 독특하고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디바스 드림 컬렉션 워치. 지름 37mm 로즈 골드 소재의 부채꼴 케이스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카보숑 컷 블루 사파이어와 천연 공작새 깃털로 장식한 다이얼, 그린 엘라게이터 스트랩으로 통일감을 부여했다. 3천 9백만원 **블가리**. 02-6105-2120 10 지름 29mm의 광택한 세드나 골드 소재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과 인테스로 우아함을 완성하고, 블루 다이얼과 스트랩으로 포인트를 준 컨스텔레이션 코-엑시절 마스터 크로노미터 3천2백90만원 **오메가**. 02-6905-3301 11 다이얼과 베젤, 그리고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패배 세팅해 클래식하고 단순한 디자인에 우아함과 품격을 더했다. 지름 37mm의 슬림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로 선보이는 패트리샤 스텔 와인딩 주얼리 1억2천2백만원 **바세론 콘스탄틴**. 1877-4306 12 오벌 형태의 케이스가 돋보이는 브랜드 아이코닉 워치로 베젤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케이스, 클래식한 무드를 전하는 로마숫자 인테스와 검 오양 블루 스텔 밴드, 바니시 레드 엘라게이터 가죽 스트랩이 돋보이는 바니시 워치 2천9백만원 **카르티에**. 1877-4326



LONGINES

(위부터) 정제의 미학을 담은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한대작이면서 우아한 워치. 21.5 X 29mm의 직사각형 스텔인리스 스텔 케이스에 38개의 IF-VS 톱 웨셀턴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다. 코스모 스타일 원형 다이얼이 모던한 매력을 지니며, 정밀한 1.78 리츠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미니 돌체비타 5백30만원, 클래식한 직사각형 스텔인리스 스텔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기묘세 효과를 더한, 내부 사각형 프라운과 칼라감이 돋보이는 세린 블루 엘라게이터 스트랩 버전의 미니 돌체비타 9백만원 모두 **롤렉스**. 문의 02-3479-1940

BVLGARI

(왼쪽부터 차례대로) 보석을 가장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1950년대부터 사랑받아온 카보숑 컷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옐로 골드 소재의 불가리 카보숑 네크리스 5백95만원, 눈길을 사로 잡는 볼륨감과 매종의 독보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뤄 역동적인 매력을 선사하는 옐로 골드 소재의 불가리 카보숑 링 3백50만원 불가리.



(왼쪽부터 차례대로) 여성미를 세련되게 표현한 로즈 골드 소재로 재탄생으며 매종의 아이코닉한 부채 모양 모티프를 레드 컬러의 카탈리언으로 장식했다. 다바스 드림 네크리스 5백35만원, 선명한 그린 컬러의 말린카이트 펜던트에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파베 세팅했다. 다바스 드림 네크리스 5백45만원, 모두 불가리, 문의 02-6105-2120



CHANEL WATCHES & FINE JEWELRY

(우부터 차례대로)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퀘팅 모티프가 새겨진 링크를 전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코코 크라쉬 스몰 링, 18K 베이지 골드 소재 코코 크라쉬 스몰 링, 다른 링들과 레이어링하기에 제각각 작은 사이즈의 18K 옐로 골드 소재 코코 크라쉬 미니 링, 우아한 절라감을 자랑하는 18K 베이지 골드 소재 코코 크라쉬 네크리스, 18K 베이지 골드 소재 코코 크라쉬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사설 워치 & 화인 주얼리**.

(우부터 차례대로) 18K 옐로 골드 코팅 케이스와 체인 그리고 블랙 레더 브레이슬릿의 조화가 클래식한 맛을 풍기는 프리에르 오리지널 에디션, 총 0.187캐럿의 31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한 코코 크라쉬 다이아몬드 스몰 링, 약 0.1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2개를 스틸 케이스에 세팅해 세련되고 심플한 무드를 선사하는 프리에르 리본 워치, 퀘팅 모티프가 특징인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라쉬 브레이슬릿, 총 0.08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1개 세팅한 코코 크라쉬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사설 워치 & 화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왼쪽부터 차례대로) 총 0.25캐럿의 81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라쉬 브레이슬릿, 총 0.3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라쉬 다이아몬드 미니 링,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코코 크라쉬 미니 링, 총 0.18캐럿의 31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코코 크라쉬 스톤 링, C 모양의 디자인이 도화적인 매력을 선사하는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코코 크라쉬 브레이슬릿, 0.03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코코 크라쉬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사설 유통처 & 화인 주얼리.**



(왼쪽부터 차례대로) 깨끗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배가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라쉬 네크리스, 치분한 느낌을 선사하는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코코 크라쉬 네크리스, 총 0.35캐럿의 18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라쉬 미니 링,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라쉬 미니 링, 시크한 무드의 블랙 레커 다이얼과 18K 옐로 골드 케이스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프리미에르 오라지널 에디션 모두 가격 미정 **사설 유통처 & 화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위부터 차례대로) 서로 얽힌 모티브를 중심으로 부드러운
골드의 다발 밴드가 결합되어 영리한 6개의 의미를 담았다.
총 0.88카트의 1백15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포멀리토 투게터 브레이슬릿, 2개의 라운드 골드 링이
가로 줄로 연결된 디자인으로 정제된 우아함을 발산하는
총 0.49카트의 26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멀리토 투게터 링,
다이아몬드를 할 때에 세팅한 원형 밴드부터 양쪽 끝에 달려 있는
디자인으로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합을 상징한다. 52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포멀리토 투게터
네크리스, 우아하면서도 심플해 더욱더 착용하기 제격인 32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포멀리토
투게터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2-3143-3486



POMELLATO

(위부터 차례대로) 총 1.77카트의 78개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파베
세팅해 완성한 누도 다이아이어링, 18K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에 칼세도니와 핑크 쿼츠, 그리고 총 0.77카트 브라운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은은한 멋을 자랑하는 누도 클러시 링, 사선을 시로잡는
칼라진의 편단 블루 토파즈가 특징이며, 밴드에는 총 0.99카트의
블루 시파리아를 총총하게 세팅한 누도 링, 대담한 실루엣을 자랑하며
화이트 골드 세팅한 1백37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는 누도 맥시 솔리더어 링, 심플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담았으며, 총 1.48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드 소재와
화이트 골드 소재의 누도 다이아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wish list
JEWELRY

1 총 97.46카트의 에메랄드 컷 사파이어와 총 23.89카트 리넨드 컷 사파이어, 그리고 총 90.73카트의 파이어 세이프 다이아몬드, 총 19.39카트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하고 대담한 무드를 지니는 2023년 레드 카펫 컬렉션 네크리스 가격 미정 **쇼파드** 02-6905-3390, 2 다이아몬드 재킷의 태양 모티브에 체인 컬러링이 반영된 걸작이다. 총 2.49카트의 1백70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피아제 스타이트 체인 이어링 **3천 백** 02-1669-1874, 3 총 5.97카트의 루신 컷 에메랄드와 총 2.23카트의 주얼리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실루엣을 자랑하는 잔 솔라르제 바이 테파니 비드 온 어릭 네크리스 가격 미정 **타파니** 02-6250-8620, 4 해설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총 0.24카트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8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페 드 실로 이어링 **7백70만원** **사넬** **화인 주얼리** 080-805-9628, 5 로시시대 행복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4개의 꽃잎을 지닌 꽃에서 영감이 탄생했다. 2개의 루블리온트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피오레타 링 **2천800만원** **블라지** 02-6105-2120, 6 정교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총 1.26카트의 1백17개의 리넨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플립 드 평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2천만원대** **부세론** 02-3467-8334, 7 총 7.24카트의 1백92개 사파이어와 총 12.13카트의 3백24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총 1.05카트의 루신 컷 다이아몬드 17개를 세팅한 팬시 시크릿 워터 가격 미정 **쇼페** 02-3442-3359, 8 사탄스라운 무드를 전하는 핑크 다이아몬드 총 4.13카트와 화이트 다이아몬드 총 14.46카트를 세팅했다. 그리고 파베 바타블라이 컬렉션 멀티 세이프 핑크와 화이트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그라프** 02-2256-6810, 9 로미의 개수 관장에 워터 센서 블루네이 공정을 모티브로 완성한 링으로 총 5.04카트의 루신 컷 루비 17개가 대담한 재치를 드러낸다. 핏츠 링 가격 미정 **반블루프 이젤** 1877-4128, 10 총 2.24카트의 하트 모양 나비와 핑크 투르말린을 세팅한 우수 프래드 이너리이트 프라티 우먼 재-쿠스 하트 링 가격 미정 **프래드** 02-514-3721, 11 메종을 상징하는 에그 모티브에 다양한 원석을 촘촘하게 세팅한 이모션 에그 네크리스 가격 미정 **파베르제** 02-3442-4706.



(워터 체인) 총 57.33카트의 3백68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대담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18K 화이트 골드 소재로 재치해 깨끗하고 우아한 느낌을 배가하는 마루스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가격 미정 **플로프** 02-3442-4706, 아이코닉한 숫자 5 디자인이 특징인 총 2.23카트의 72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이어링 N5 변형 기능형 이어링 **4천7백40만원** **사넬** **화인 주얼리** 080-805-9628, 수국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해 인체학과 불꽃같이 있는 실루엣이 특징이다. 선타에는 총 2.97카트의 다이아몬드가 자리잡고, 주변엔 영롱한 빛을 지니는 다이아몬드로 다양한 크기의 꽃잎을 표현했다. 와이드 부케 레디언트 링 가격 미정 **타파니** 02-3461-5558, 인체적이고 생생한 플라워 디자인이 신들러링에 충추는 꽃을 연상시킨다. 총 2.17카트의 1백12개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포플러 비트윈 더 링거 링 가격 미정 **반블루프 이젤** 1877-4128, 불꽃같이 있는 플라워 모티브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무드를 선사하며, 다이아몬드를 생생하게 세팅한 다이몬드 링 **9천4백30만원** **쇼파드** 02-6905-3390, 승리와 번영, 그리고 불멸을 상징하는 월계수 잎 모티브가 강인한 여성스러움을 부각하며, 총 3.87카트의 브릴리언트 컷 4백56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로라에 브레이슬릿 **6천만원대** **쇼페** 02-3442-3359, 유려한 곡선 디자인이 우아함을 뽐내는 동시에 총 0.66카트의 파이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멋을 전한다. 상스 인피니 이어링 **3천4백70만원** **프래드** 02-514-3721.



LOEWE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는 나뭇가죽으로 재주해
자연스럽고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선사한다.
애니그램을 새긴 매몰 장식이 돋보이며 추가
제안들 갖춰 슬더백, 크로스백, 핸드백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미디엄
스퀘즈 백 가격 미정 로에베.



(위부터 시계방향) 로에베와 고토에 위치한 도자기 스튜디오,
수나 후지타가 만나 새롭게 선보이는 합숙 컬렉션의 애니그램,
자연과 동물에서 영감을 받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다채롭고 유쾌함을 불러일으키는, 큐브 형태와 정교한
캐칭 기술로 기하학적 라인미 돋보이는 맨드레이크 스몰 퍼즐
백, 벨트 소재로 제작하고 카프 스킨 루트 스트랩을 다채
맨드레이크 참, 전면에 어우원송이 프론트 모터브를 더해
귀여움을 지어내며, 촉감을 펼쳐 향미를 바꿀 수 있는 실용성이
돋보이는 새틴 카프 스킨 소재의 리미 캠펙트 해커 백, 에-엘
차리한 참에 루프 카프 스킨 스트랩을 연결한 뱀린 참 모두
가격 미정 로에베. 문의 02-3479-1785

LORO PIANA

(왼쪽부터) 엔틱리한 여행용 수트케이스가 지닌 빈티지한 매력을 재해석한 디자인의 백, 부드러운 천연 가죽에 깊은 컬러감으로 완성해 우아한 느낌을 지어낸다. 패들룩 침 장식과 스티치 디테일 등을 적용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엑스트라 백 딥 쿠엘 4백55만원, 엑스트라 백의 패들러로 새롭게 선보이는 액세서리 같은 실루엣의 크로스 보디 백 스타일인 엑스트라 케이스, 독특한 실린더 세이프에 침 장식을 더하고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해 감인 정신이 느껴진다. 3백85만원 모두 로로피아나.



(우부터) 독특한 헤리티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베인 백으로 여유로운 우아함과 사치를 초월하는 매력을 담았다. 캐시미어를 보편하는 쿠라미에서 영감받은 이들과 큐브 디자인으로 아이코닉한 감성을 더하고, 부드럽고 균일한 내추럴 그레인과 오리지널 디테일, 메탈 주얼 장문장자로 디테일하게 마무리했다. 여성스러운 무드를 부여하는 베이비 핑크 송이까지족 소재의 마이크로 베일 백 캔들러 마블,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감성을 전하는 딥 브라운 컬러의 마이크로 베일 백 월 텐 각 4백55만원 로로피아나. 문의 02-546-0615



(왼쪽부터 차례대로) 그래픽이 선 굵고 크리스탈로 매력적인 광채를 더해, 세르펜티의 유려한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손잡이의 디테일이 특징인 세르펜티 미니 토트백 7백만원 **볼가디** 02-6105-2120. 출출한 사람이 반복인을 배가하는 미니 트라오프 온 체인 인 스타라프 사본즈 골드 가격 미정 **셀란느 바이 에다슬리엔** 1577-8841. 메탈릭 미러 카프 스카프로 완성해 아찔 록에나 스타일미스한 포인트가 된다. 특히 별 모양의 참은 귀여움을 자아낸다. 미니 플립 백 가격 미정 **사넬** 080-805-9628. www.chanel.com. 발목을 휘감는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클란데스티노(CLANDESTINO) 벨루어 힐 샌들 2백34만원 **주세페 자노티** 02-3479-1095.

하루스의 아이코닉한 에그셴을 새긴 금속 패들이 간결한 실루엣과 잘 어울린다. 부드러운 멜로 카프 소재로 제작한 미디엄 패들 백 **로에베** 02-3479-1785.

FOURMLOUNGE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급스러운 와인 컬러가 단정하고 차분한 느낌을 전하는 카프 스킨 소재의 브리프케이스 2백38만원 **간조 by 폴라운지**. 100% 울 소재로 양 끝의 프린지 디테일이 돋보이는 폴카도트 울 스카프 42만9천원 **드래익스 by 폴라운지**. 우편 패턴이 들어간 스카프 소재의 오브제로 입체적이고 볼륨감 있는 등을 행커가 귀여움을 자아내는 레드 우빙 오브제 13만8천원 **히로타 by 폴라운지**. 광택감이 느껴지는 악어 가죽 소재로 위쪽 모서리가 깎인 디테일이 특징인 크로커다일 카드 홀더 68만8천원 **지오사 by 폴라운지**.

(위부터 차례대로) 클래식한 무드를 전하는 파이즐리 패턴을 프린팅한 실크 소재의 트윙클 파이즐리 프린트 타이 26만9천원 **드래익스 by 폴라운지**. 매끈한 스카프로 제작했으며, 촉감에는 알라스틱 소재를 더해 편안함을 배가한 레드 첼시 부츠 1백30만원 **산토니 by 폴라운지**. 매력적인 프린팅이 돋보이며 양 끝의 프린지 디테일이 특징인 100% 실크 소재의 유니콘 프린트 튜블러 실크 태슬드 스카프 49만9천원 **드래익스 by 폴라운지**. 고급스러운 레드 컬러감이 눈길을 사로잡는 악어 가죽 소재의 엘리게이터 카드 홀더 1백58만원 **지오사 by 폴라운지**.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베이지 스웨이드 소재로 제작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오렌지 스티치 디테일이 맛을 배가하는 스웨이드 로퍼 99만2천원 **산토니 by 폴라운지**. 브라운 태슬 디테일이 멋스러움을 더하는 스카프 소재의 스웨이드 태슬로퍼 1백28만원 **산토니 by 폴라운지**. 모그렘 패턴이 들어간 숄더 지퍼 가죽 소재로 완성해 탄탄한 내구성이 특징인 그래픽 캔버스 브리프 케이스 1백72만원 **모로 by 폴라운지**. 시승가죽과 캐시미어 소재로 제작해 부드럽고 견고함이 돋보이는 동시메 니트 형식의 시보라와 월링 디테일로 따뜻한 무드를 부여하는 디어스킨 캐시미어 장갑 42만8천원 **마블레니 by 폴라운지**. 문의 02-3438-6142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드러운 숄더 지퍼 가죽으로 완성했으며, 자파로 여관을 수 있는 입구와 아너 포켓 디테일이 있어 높은 실용성을 자랑하는 토트백 2백59만원 **모로 by 폴라운지**. 3층의 캔 케이스로 안면의 로고 디테일을 음각 처리로 마무리했고, 이탈리아 베자타를 가죽으로 제작해 매끄러운 촉감이 특징인 미에스트로2 케이스 25만8천원 **간조 by 폴라운지**. 더블 랭크 장식이 클래식한 맛을 전하는 스카프 소재의 더블롱크 로퍼 1백19만원 **산토니 by 폴라운지**. 유연한 밴드에 블랙 이케이트 원석 비즈와 루타롱 도금의 은색 디스크로 제작한 디스크 비즈 브레이슬릿 40만5천원 **탄테오스안 by 폴라운지**. 허벅지 솔라트 현금 보관을 위한 1개 중앙 솔라트 홀로 활용성이 높은 악어 가죽 소재의 카드 월렛 1백만원 **지오사 by 폴라운지**.



wish list
BEAUTY & LIVING



1



5



6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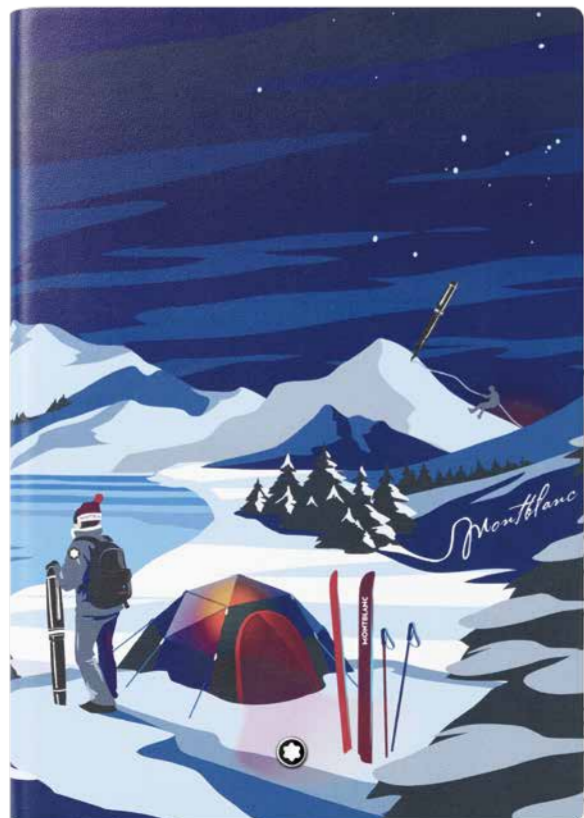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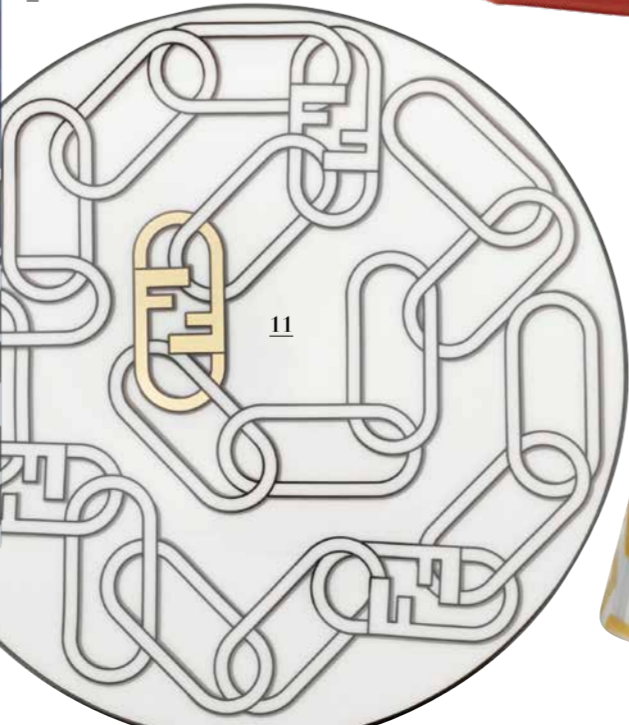
1 알프스산맥의 반짝이는 눈에서 영감을 받은 홀리데이 컬렉션의 하이퍼터, 비저르 블리자드 홀리데이 리미티드 컬러 컬렉션의 엑스트라 디펜션 스킵-피-쉬 10g 6215천원 맥, 02-3440-2782 2 장립 280주년을 맞아 연말연시 무드로 재탄생한 리미티드 에디션 보틀의 상패인, 오넷 & 상동 로제 앙페라말 750ml 가격 미정 오넷 & 상동, 02-2188-5100 3 매끄러운 질감 소재와 상패인 패킷팅, V자 모티브로 훌륭한 홀리데이 오브제인 월 가스통 폴 스탠드홀로스 3백77만원 루이 비통, 02-3432-1854 4 설피 모드, 최대 10cm 클로즈업, 스마트폰 전송, 프린트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미니-립한 디자인의 라이카 소포트 2 60만원대 라이카, 1661-0504 5 단숨에 공간을 홀리데이 무드로 바꿔줄 다이얼로 마감된 클래식 스노우 글로브 1백70만원대 까르띠에, 1877-4326 6 배너차 라다와 브라스를 믹스해 완성한 고급스러운 느낌의 상패인 바킷 4백만원대 발루티, 02-547-1896 7 반짝이는 뉴욕의 연말에서 영감을 받은 2023 골드 글래머 컬렉션의 럭셔리 아이섀도우 듀오 미드 워트스트 1.5gX2 7만1천원 바비 브라운, 02-6971-3225 8 이타스트 파이프토 루피Petro Rullo가 디자인한 골드 테마 케이스에 홀리데이 메이크업에 필요한 필수 요소를 담은 다용 멀티 메이크업 팔레트 홀리데이 구쥘리 컬렉션 23 8g 16만5천원대 디올, 080-342-9500 9 홀리데이를 기념해 출시한 골드 TB 모노그램 컬렉션 페스티브 23 랍스티 라셋 #93 장려 3.3g 5만7천원 바비리 뷰티, 080-850-0708 10 겨울의 불을 끄거나 향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매직 앤 원더 데코레이션 컬렉션 세라믹 소재의 골드 바질 스누퍼 10x5cm, 60g 10만2천원 담피크, 02-3479-6049 11 팬디 오막 체인 모티브 장식의 최고급 리모주 포슬린으로 제작한 브레드 플라워트 11x11cm, 10만2천원 팬디, 02-544-1925 12 해가 진 알프스의 산을 배경으로 스키 마스코트가 미니 스타터만 만년설과 함께한 모습을 레더 카바에 담아낸 홀리데이 컬렉션 #146 노트 15x21cm 12만원대 람블랑, 1877-5408



12



9



11



10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이 시인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맑고 생기 있는 컬러와 광택을 선사하는 루주 보아레 글래머 라인 랍스티 102 프루프루 2.5g 6만8천원 보아레 02-310-5025, 나스 더 홀리데이 2023 컬렉션에서 새롭게 출시한 나스 엔들리스 나이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1.7gX9 6만8천원대 나스 080-564-7700, 반짝이는 금빛 화려함과 그 철학의 순간에서 영감을 받은 홀리데이 에디션, 프레셔스 메탈 컬렉션의 레디언트 골드 아이슈머 2.5g 10만2천원 상파리 070-4370-7511, 지방시 메이크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톰 워카가 참여한 홀리데이 에디션의 프라즘 리브르 스킨-케어링 하이퍼터 핑크 11ml 6만2천원 지방시 뷰티 080-801-9500, 탄력 케어를 위해 고안한 브이펌 트리를 포폴라에 고농축 우유 단백질을 더해 글라진 함성을 축적해 피부 탄성을 되찾아주는 인티에이징 집중 케어 세럼, 브이 펌 세럼 30ml 43만원 발몽 070-4352-5203, 아이크림 전에 사용하는 눈가 전용 에센스, 에센스 오브 스킨 케어 15ml 31만1천원 라프라리 02-6390-1170, 2023년 홀리데이를 맞아 도르 긴자 특유의 감성이 돋보이는 알라스트를 담은 특별한 패키지로 출시한 알티몽 피부 인퓨징 컨센트레이트 11 홀리데이 에디션 75ml 18만5천원 시세이도 080-564-7700, 수중 세제를 싫어하는 여주인공이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스토리를 이타스트 케어티 로자스의 시각으로 풀어낸 디자인 패키지의 투워드 더 호리즌(Toward the Horizon) 컬렉션, 라 크렘오 50ml 1백만원대 글레드보 보테 080-564-7700, 베일로 감탄 듯 상쾌한 피펫질과 우아한 피부 광채를 선사하는 압슬뤼 루즈 파우더 15g 14만원대 람블랑 080-022-3332.

Warm Steps

겨울 스타일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츠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중앙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카프 스킨 소재 무릎까지 오는 길이의 레이스업 스타일로 모던한 핏에 록 시크적 스타일링을 위한 기어, 일창 별 디테일의 디올라벨(DIOREBEL) 부츠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280-0104, 날카로운 이문드 토 디자인과 3개의 버클로 마무리한 가죽 스트랩 장식이 포인트인 웨스턴 스타일 리라 트로플 버클 부츠 가격 미정 셀린느 바이 에디슬리먼, 문의 1577-8841, 아이코닉한 카펠리아 플라워와 사벨 로고를 프린팅한 카프 스킨 소재의 하이 부츠 가격 미정 사벨, 문의 080-805-9628, chanel.com, 버니싱 처리한 플 그레이인 숭이커가 죽으로 재처리한 근사한 광택과 풍부한 색감을 선사하는 틸트 핏팅 버니싱 부티, 이베스트리언 헤라티지를 모던하게 재해석했으며, 플라싱 처리한 골드 톤 스타일 버클로 고정하는 랩어라운드 앵글 스트랩이 특징이다, 1백70만원대 발코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660, 2023 F/W 패션쇼에 등장했던 부츠로 핸드 페인팅으로 완성한 트롬프리유 슈즈와 삭스 디자인에 리본 디테일, LV 이니셜을 디테일 완성한,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영감을 받은 일루진 앵글부츠 3백50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에디터 상영민

이 스타일은 신영민



Tomboy's Fantasy

영상으로만 공개한 셀린느 2024 서머 컬렉션 '톰보이, 라 콜렉션 드 라 비블리오테끄 나시오날(Tomboy, La Collection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에디 슬리먼이 재해석한 톰보이 스타일의 룩들이 프랑스 파리의 역사적인 공간 파리 국립 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에 가득 펼쳐진다.



지난 10월 20일 셀린느에서 영상을 하나 공개했다. 바로 톰보이, 라 콜렉션 드 라 비블리오테끄 나시오날(Tomboy, La Collection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에디 슬리먼이 총괄 디렉팅을 맡은 2024 서머 컬렉션 쇼를 담은 영상이다. 소장으로 선택한 것은 얼마 전 공사를 막 끝내고 오픈한 프랑스 문화 기관 중 하나인 프랑스 파리 국립 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이었다. 그녀는 곳보다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오래된 장소에서

자신을 확고히 한다. 몸에 착 달라붙는 소프트 재킷과 미니스커트 실루엣을 완성 했는데, 이는 에디 슬리먼이 1990년대 말 자신이 디자이너 경력에 사임한 이래 한결같이 추구해온 매력적인 앤드루지너스 테일러링 스타일을 떠올리게 한다. 여가 레오파드 패턴으로 개성을 표현하며 워커 부츠와 샌들리츠를 골라 게 매치해 현대적이면서도 트랜디한 느낌을 가미했다. 걸리시한 원피스, 시어 한 느낌의 드레스에 오버사이즈 재킷을 록 감치고 워커 부츠를 신은 룩은 톰보이 이의 전형을 보여주면서도 쿨루르적 터치를 가미한 디테일한 소재들이 셀린느 의 의상 제작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여준다. 이와에도 짧은 팬츠에 브라

1 프랑스 파리 국립 도서관을 배경으로 진행된 셀린느 2024 서머 컬렉션 쇼. 2 실린느 드레스에 오버사이즈 재킷을 매치해 톰보이 룩의 정수를 보여준다. 3 부츠 컷 진의 실루엣이 돋보이는 착장. 4 빅투아르 백을 무성히 들고 워킹하는 모델. 5 이번 셀린느 2024 서머 컬렉션 쇼의 오프닝 룩. 6 셀린느 빅투아르 백. 7 마스터 앤드 다이내믹과 칼라베라이션에 선보인 셀린느 헤드폰. 8 계절감을 초월한 앙탈 부츠.



이 책 중 한 권을 여는 것으로 시작한다. 마치 새로운 챗터를 열겠다는 듯한 의미로 다가온다. 이번 쇼의 컬렉션의 상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지난 컬렉션 까지만 해도 록 시크적인 무드의 컬렉션을 전개한 반면 이번 모토는 '톰보이로 확 탈바꿈' 했기 때문. 에디 슬리먼의 톰보이 룩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설렘을 담은 오프닝 의상을 통해 이번 컬렉션이 어떤 무드로 나갈

지를 확고히 한다. 몸에 착 달라붙는 소프트 재킷과 미니스커트 실루엣을 완성 했는데, 이는 에디 슬리먼이 1990년대 말 자신이 디자이너 경력에 사임한 이래 한결같이 추구해온 매력적인 앤드루지너스 테일러링 스타일을 떠올리게 한다. 여가 레오파드 패턴으로 개성을 표현하며 워커 부츠와 샌들리츠를 골라 게 매치해 현대적이면서도 트랜디한 느낌을 가미했다. 걸리시한 원피스, 시어 한 느낌의 드레스에 오버사이즈 재킷을 록 감치고 워커 부츠를 신은 룩은 톰보이 이의 전형을 보여주면서도 쿨루르적 터치를 가미한 디테일한 소재들이 셀린느 의 의상 제작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여준다. 이와에도 짧은 팬츠에 브라 톱을 매치하고 그 위에 트워드 재킷을 걸친 후 앙탈 부츠로 마무리하거나 트레 이닝 팬츠에 가죽 소재 재킷을 얹는 등 반전적인 요소와 믹스 매치로 쿨한 요소를 더했다. 팬츠의 경우 부츠 컷 실루엣이 다수를 이뤄 앞으로 전개될 에디 슬리먼의 실루엣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율향 기기 전문 브랜드인 마스터 앤드 다이내믹(Master & Dynamic)과의 콜라베라이션으로 선보이는 셀린느 트롬프리유 문양을 새긴 가죽 헤드폰. 이 헤드폰을 목에 무성히 두듯 걸쳐 룩의 무드를 완성한다. 이번 2024 서머 컬렉션 의상은 대다수가 서머 제품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시어링 파우퍼 부츠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고, 실루엣 역시 에디 슬리먼이 추구하는 실루엣에 남성 제품인지 여성 제품인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의상을 선보였다. 소년 같은 여성의 의미를 담은 '톰보이 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성과 남성성 또는 계절감에 상관없이 그저 에디 슬리먼의 실루엣으로 모든 것이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쇼를 완성했다. 그리고 오직 쇼만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에디 슬리먼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잡한 영상 효과가 없어 의상에 더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 그런 이래 BGM으로 나오는 LCD 사운드시스템의 연주곡 Too Much Love는 모델의 스타일과 어우러져 톰보이스러움을 더욱 극대화했다. 다가올 셀린느의 2024 서머 컬렉션 발매가 기대되는 이유다. 영상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문의 1577-8841 에디터 상영민

이 스타일은 신영민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라프라이 스킨케어 나이트타임 오일 피부의 생물학적 주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나이트 케어 오일. 나이트 스킨케어 후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면 피부에 보습을 향상해 수분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독자적인 레티놀과 케라아 결정체가 새로 태어난 듯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꾼다. 20ml 79만1천원. 문의 02-6390-1170 **샤넬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뉘 밤**에 사용하면 더 좋은 프리미엄 나이트 컨센트레이트 세럼으로 강력한 스카이어 효과를 지닌 네 가지 성분(이 피부 리페어와 활력에 도움을 주며 다음 날 아침 충분한 휴식을 취할 듯 환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말바꿈사된다. 30ml 69만9천원. 문의 080-805-9638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엔메이 애프터케어 리뉴얼 크림** 1백50년간의 연구 결과로 탄생한 레전더리 엔메이 콤플렉스TM가 수분, 탄력, 광채, 젊, 안색까지 다섯 가지 피부 노화 징후를 케어한다. 피부에 닿는 순간 녹아내리듯 생체에게 스며드는 부드러운 텍스처와 풍부한 향으로 감각적인 나이트 케어를 돕는다. 50ml 60만2천원. 문의 080-564-7700 **발롱 오일 세럼 마레스티오** 발진 추출물의 영양과 회복력을 담아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가꾸주는 오일 텍스처의 프리미엄 세럼. 끈적임 없이 가볍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핵심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해 즉각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킨다. 30ml 68만2천원. 문의 070-4352-5203 **디올 프레스타지 르 벵타 프리미에** 아침 장미에서 얻은 새로운 활성 성분인 로사렘피이드 프리미에가 피부의 시간으로 도물리듯 피부 장벽과 표피를 회복시켜 피부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탄력, 젊, 생기를 개선한다. 온온한 장미 향이 향기를 선사하며, 제형 사용 후 리프트된 구멍을 교정할 수 있다. 30ml 89만2천원. 문의 080-342-9500 **클리앙스 프레스스 라 크렘 드 리슈** 부드러운 벨벳 텍스처와 충분한 영양감으로 밤에 사용하기 좋은 크림. 1년에 단 하루 달이 뜨는 밤에 꽃을 따오는 잔대한 모리타트 플라워를 영하 196℃에서 냉각시켜 추출한 생분이 강력한 에-자피 풍부한 탄력을 부여해 손상된 피부의 회복을 돕고 생기와 활력 넘치는 피부로 가꾼다. 50ml 46만2천원. 문의 080-542-9052 **보이베 입술리프트 크림** 밤노랑이 추출물과 장미꽃, 고추잎 추출물 등 피부 생기와 탄력에 효과적인 성분을 적절하게 배합해 피부에 탄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안티에이징 크림. 유-수분 밸런스가 조화롭고 생체와 더 정교하게 교정된 피인 텍스처가 감각적인 리추얼을 돕는다. 50ml 55만2천원. 문의 02-310-5025 에디터 **상영민**

good Night

피부 회복에 최적화된 시간인 밤을 위한 럭셔리 프레스타지 스킨케어.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Revive the Skin

샤넬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카이어 라인,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성분과 포몰러의 신제품으로 피부 활력과 리페어 효과를 선사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프리미엄 고농축 리페어 오일 세럼 15ml 69만15천원.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뉘 프리미엄 고농축 나이트 컨센트레이트 세럼 30ml 83만원. 라뮐 69만9천원.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크렘 프리미엄 고농축 리페어 크림 50g 79만원, 라뮐 67만원.

혁신적인 고농축 포몰러로 피부 활력을 더하다
시간이 흐르며 여러 외부 자극 혹은 노화로 인해 피부는 회복력을 잃는다. 오염, 자외선, 스트레스 등으로 피부의 자연스러운 개선 과정이 둔화되는 것. 샤넬은 이 노화 징후에 주목했다. 피부 활력을 일깨우는 피부 리페어 프로세스에 집중한 것. 스카이어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카이어 라인, 수블리마지 렉스트레는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더욱 업그레이드해 선보이는 신제품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뉘'와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크렘'에는 강력한 스카이어 효과를 지닌 네 가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자연의 무한한 생명력을 담아낸 바닐라 플래니폴리아는 부드럽고 건강하며 더 탄력 있게 빛나는 피부로 가꾸준다. 풍부한 영양감의 플라니폴리아 에 페페르, 앵골리리추 오일, 바닐라 워터가 고농축되어 있는 포몰러는 사용 후 다음 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듯 송고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한다. 두 신제품에 함유된 히말라야산 스위티아 성분은 샤넬 하우스만의 독자적인 공정을 거쳐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하고 리페어 효과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뉘'는 샤넬 연구소가 개발한 피부 노화, 즉 세네스스(senescence)의 모든 단계에 작용하는 활성 성분을 함유해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 두 신제품은 리필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친환경적인 패키지로 출시되어 특별함을 더한다.

집에서 누리는 감각적인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리추얼
고급한 성분으로 섬세하게 완성된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라인은 감각적인 향과 풍부한 영양감을 선사하는 텍스처로 나를 위한 소중한 스카이어 리추얼을 완성해준다. 피부 활력을 깨워주는 고급스러운 홈케어를 원한다면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뉘'와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크렘', 그리고 프리미엄 고농축 리페어 오일 세럼 '수블리마지 렉스트레'를 함께 사용해 더욱 생기 있게 빛나는 피부를 완성해보자.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뉘'는 오일-인-워터 타입 포몰러로 오일이 피부에 닿는 순간 반짝이는 미세한 물방울로 변하며 피부를 환없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감싸주고 활력을 더해준다.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크렘' 또한 풍부한 영양감과 보습감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동시에 끈적임 없이 마무리되는 신뜻한 마무리감으로 피부를 더욱 부드럽고 빛나게 만든다. 풍부한 영양감이 농축된 리페어 오일 세럼 '수블리마지 렉스트레'는 사용 후 다음 날 강력한 스카이어 트리트먼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라인의 세 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더 확실한 피부 리페어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피부에 온온한 휴식을 선사하고 싶다면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리추얼을 꼭 경험해보길 추천한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에디터 **상영민**

new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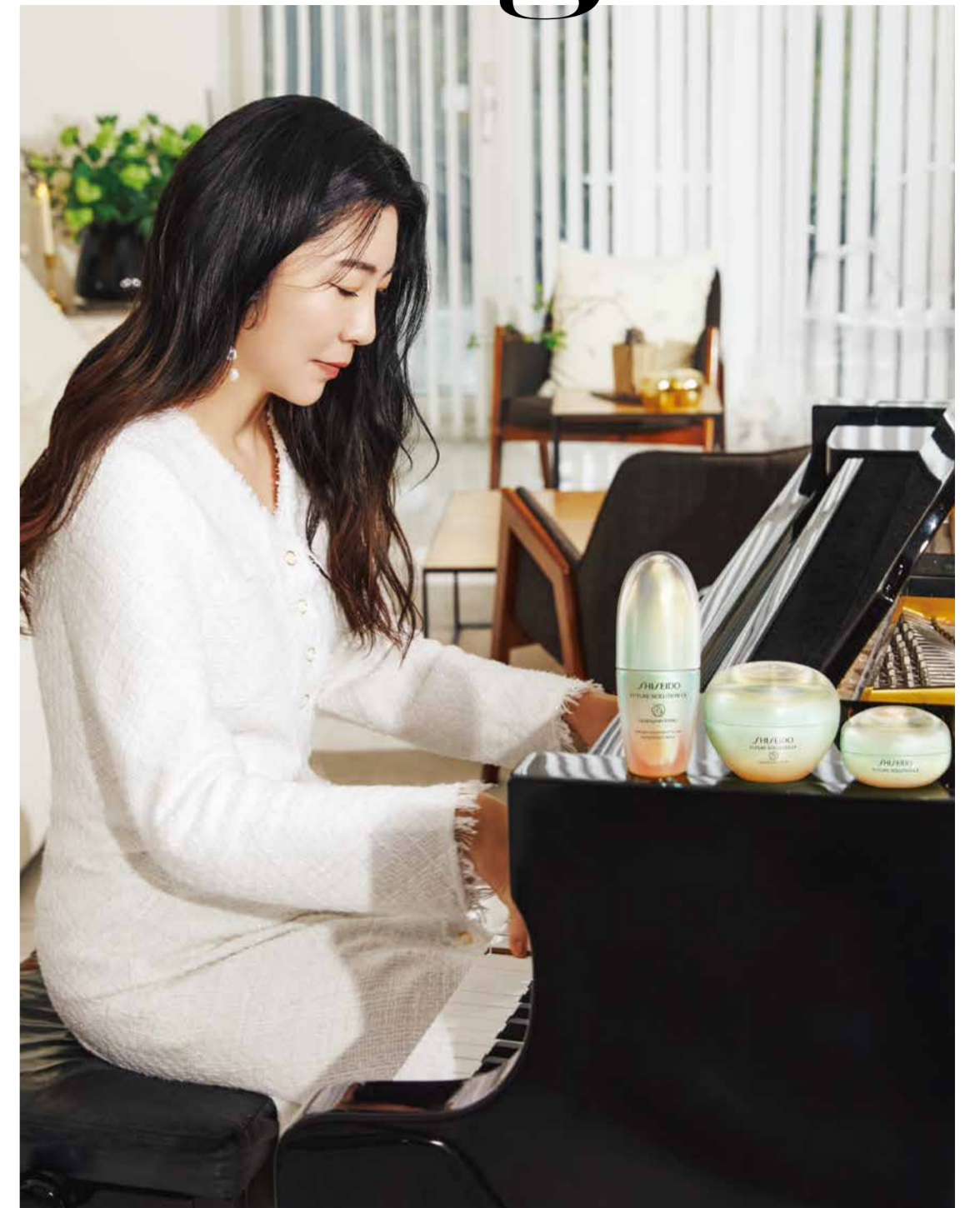
뷰티 케어는 간편하고 확실한 효과가 보일 때, 데일로 루틴으로 이어진다. 훌륭한 뷰티 조력자가 되어줄 다이비스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차례대로) **실킨 페이스리프트** 고주파 에-치로 피부 온도를 43도까지 끌어올려 진피층을 자극하고 콜라겐, 엘라스틴의 생성을 촉진한다. 이중 턱, 처진 볼살, 턱선 관리에 탁월하다. 56만원. 문의 080-246-1234 **타라 피아스 프로** 피부의 근육을 케어해 얼굴의 긴장을 풀어주는 파카사브 태로피를 적용한 다이비스. 동시에 미세 진동 요법을 이용해 피부 탄력을 개선하며, LED와 클레징 기능을까지 선사한다. 54만원. 문의 1533-9706 **필립스 솔루션 LX** 레이저가 들뜨면 다림을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며, 솔링을 자극 없이 케팅한다. 또 곡선 형태의 헤드 디자인이 굽은 모까지 밀착해 일관되게 제모한다. 4만5천원. 문의 080-600-6600 **쿠아웨이브 엔메이**와 EMS, 갈바닉, 미세 진동, 광사, 라이트 테라피 총 다섯 가지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올인원 아이템. 중주파 진동기 얼굴 근육에 타이트닝 효과를 부여하고 탄력을 개선하며, 갈바닉 진동은 화장품 흡수를 촉진한다. 34만원. 문의 1566-3356 **포리오 바이 쿠팡이** 사후케어의 신세 진료를 받는데 세 포 단위로 피부를 개선하고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미세 진동, 마이크로카운트를 적용한 다이비스. 얼굴 윤곽에 맞춘 디자인이 특징이며 무게도 가볍고 부피도 작아 언제 어디서든 피부 관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57만원. 문의 02-2039-8342 **다이비스 에어랩** 열대 스테이킹 **새부리 랩 에디션** 초기 청스기 모델의 컬러에서 영감을 딴 생생한 에디션. 블랙이 핑크, 그린, 노란색의 유쾌한 컬러 조합이 돋보인다. 자연스러운 광과 웨이브부터 단정한 스테이킹 스타일링까지, 다양한 헤어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74만원. 문의 1588-4253 **에디터 윤지영**



Secret of Elegance

오랜 시간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클래식과 같은 우아한 에티튜드와 아름다움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피아니스트 김지애. 전문성에서 비롯된 차원이 다른 고급스럽고 섬세한 그녀의 다양한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컬렉션과 함께한 시간. photographed by lee dam bi



Q 피아노, 클래식을 사랑하게 된 때는 얼마나 되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피아노와 클래식에 매료되었어요. 그냥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대중가요를 들을 때도 저는 늘 클래학과 함께했죠.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다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와 클래식이 좋았고, 그러니 당연히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을 꿈꿨고요. 그러다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났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운명 같았고 자연스러운 순서였죠.

Q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컬렉션과의 만남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운명 같았어요. 마치 제가 피아노와 클래식을 접하고 피아니스트를 꿈꾸게 된 것처럼요. 처음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엔메이 얼티메이트 루미넌스 세럼을 받았을 때 제가 그동안 사용해온 제품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 느껴졌어요. 피부에 닿는 순간부터 착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었죠. 고귀한 성분이 집약된 농밀한 텍스처가 피부에 안착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듯 흡수되는 것이 마치 피아노에서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 피부에 이질감이 스며드는 느낌이 없었죠.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엔메이 얼티메이트 루미넌스 세럼 30ml 54만원대

Q 평소 시세이도라는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있었나요? 유학 시절에 시세이도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사용할 때마다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자외선 차단제는 꼭 시세이도 제품만 고집했었고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 면에서 월등했을 뿐 아니라 피부에 발랐을 때의 발림성과 텍스처 또한 만족스러워 늘 손이 가는 브랜드였죠. 워낙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자라 피부에 이질감이 많이 남는 것보다 시세이도처럼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세이도의 제품력에 대한 믿음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



Q 엔메이 컬렉션을 선택한 이유도 시세이도라는 브랜드에 대한 믿음 때문인가요? 피부 자체가 좋게 타고나서도 해서 될 바라도 딱히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40대 후반으로 넘어가니 떨어지는 피부 탄력이 고민이 되었어요. 워낙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저는 피부과 시술보다 인테이징 제품을 먼저 사용해보고, 많은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사실 특별하다는 느낌이 못 받았어요. 저에게 맞는 제품을 찾던 중 유학 시절 사용하던 시세이도가 떠올랐어요. 시세이도의 최고가 인테이징 라인 중 엔메이 컬렉션을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브랜드들과 비슷할 거라 생각했죠. 반신반위하며 사용해봤는데 피부에 바로바로 생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과 차원이 다른 사용감을 주었죠. 일단 앞서 말한 엔메이 세럼은 물론 부드러운 텍스처의 엔메이 크림은 피부에 풍부한 영양감을 주면서도 끈적임 없이 마무리되어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결국 최근에는 엔메이 아이 크림까지 추가했죠.

Q 시세이도 레전더리 컬렉션을 사용한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저는 와인 마시는 걸 좋아해서 푸석한 피부 상태로 이침을 맞이하곤 했어요. 중요한 레슨이나 미팅이 있는 날에는 늘 푸석한 피부를 메이크업으로 가리기

조. 하지만 시세이도 레전더리 컬렉션을 사용한 뒤부터는 다음 날 아침에 피부 걱정할 일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잔살 폭 싯 눈 뽀얗고 매끄러운 최상의 피부를 만날 수 있었죠. 마치 잔살 스킨 에스테틱 숯에서 관리받은 듯 은은한 광채가 흐르는 피부라고 해야 할까요? 화장품은 꼬박꼬박 바르는 것이므로 이렇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죠. 특히 평소 바르지 않던 아이 크림도 빼놓지 않고 바르고 있어요. 확실히 떨어진 눈가 탄력을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Q 피아노 연주 중 시세이도 레전더리 컬렉션을 보면 떠오르는 곡이 있다면요? 리스트가 편곡한 슈만의 '환정'이라는 곡이 떠오르네요. 슈만이 사랑하는 클라리넷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한 곡이에요. 원래는 성악곡인데, 리스트가 피아노곡으로 편곡했죠. 풍부한 텍스처와 부드러운 발림성, 마치 내 피부에 맞춘 듯 착 달라붙는 사용감과 은은한 향까지. 이 모든 것이 매우 로맨틱하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사랑에 빠진 이의 이쁨담고 로맨틱한 감정처럼 저도 시세이도 엔메이 컬렉션과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문의 080-564-7700 **에디터 상영민**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엔메이 얼티메이트 리뉴얼 크림 50ml 60만원대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엔메이 얼티메이트 브릴리언스 아이 크림 15ml 41만원대

editor's Pick

더 확실한 피부 기초 케어 효과에 은은한 컬러와 향까지 더한 제품 13.
photographed by **kim sa yun, oh hyeun sa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방시 올리데이 에디션 르루트 앤메르디 N554 누드 스킨** 화려한 연말 분위기를 담은 실크 컬러 케이스가 돋보인다. 누드에 코팅한 방울을 섞은 듯한 컬러이며, 매트한 마무리가 시크하다. 입술에 착 달라붙어 발색이 오래가는 편. 무색 립글로스로 한 겹 덮어주면 더 멋스러워진다. 3.4g 5만 6천원대. 문의 080-801-9500. *by 에디터 장라윤*

에르메스 트레 데르메스 라비어필리자이 케어 마스크라 래쉬 투 래쉬 볼륨 이노와 뷰티 눈이 작은 편이라 작고 섬세한 브러시를 갖춘 마스크라를 선호한다. 이 제품은 초미세 이소클루시브 브러시로 망콩 모양이와 섬세한 타치가 가능하며, 97%의 천연 유래 성분으로 구성된 미일드한 포뮬러로서 민감한 눈에도 자극이 덜한 느낌. 5ml 9만5천원. 문의 02-310-5174. *by 에디터 장라윤*

맥 비저르 블러저드 올리데이 컬러 컬렉션 스파클러 아이 새도우 핑클 핑클 올리데이 시즌을 맞아 세 가지 리미티드 컬러로 출시한 이 제품은 미세한 그린 발을 가진 은은한 브라운 컬러로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다. 보기와 다르게 영롱한 컬러로 발색되어 포인트 아이 메이크업으로 제격이다. 3g 4만2천원대. 문의 02-3440-2782. *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아들라에 데조 핑크 미업 페카자부터 올리데이 분위기를 가득 담은 향수. 아7에 아들라에 데조의 시그니처한 빛나는 24K 골드 플레이어가 들어 있어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발포성 설페인 성분을 함유해 톡톡 휘는 듯한 탄산이 느껴지며, 블랙 베리와 베르가모트, 상큼한 프루트 향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향이다. 100ml 35만원. 문의 1670-1329. *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콩디트올리버 원 픽스 퍼이브 핸드크림 새벽에 깨어난 공기를 머금은 촉촉한 숲속 한가운데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유칼립투스, 그레이프프루트, 로즈메리, 라일락, 스피어민트 등의 노트가 같이 있는 청량감을 준다. 사용 후 끈적임 없이 바로 흡수되어 일상에서 사용하기 좋다. 50ml 2만2천원. 문의 070-8846-8490. *by 에디터 장라윤*

올리조이스 비하 리퀴드 각질제거제 모공에 쌓인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는 저알칼리 pH 배합이 들어가 있어 피부감을 살리면서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다. 올리조 각질 제거제에 아-라시나 피부에 흡수되어 자연스러운 각질 탈락을 돕기에 자극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18ml 3만4천원. 문의 1661-6656. *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아노브 볼륨 업 픽서 펄스 헤어 스타일링을 즐겨 하는 편이라 볼륨 헤어 픽서는 필수템이다. 수많은 픽서를 사용해왔지만 이 제품은 소프트 픽싱 기술을 더해 시간이 지나도 풍차는 현상 없이 자연스러운 고풍함을 선사한다. 뿌린 후에도 딱딱하게 굳지 않아 가브나 볼륨을 수정하기 쉬웠다. 아놀리 미세 워터 제형이라 머리 감을 때도 잔여물 없이 깨끗이 세정할 수 있어 1회용이 좋다. 200ml 1만 6천원. 문의 1670-5875. *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골드 뷰티 디올스 5 컬러링 #543 프루미드 도레 고급스러운 느낌을 선사하는 골드 컬러와 브라운, 그리고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제작된 샴파인, 매혹적인 컬러의 하모니를 담은 팔레트다. 무엇보다 크림처럼 부드럽게 퍼 빌의 오랫동안 신명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해 만족스러웠다. 표면에는 크리스찬 디올이 사랑한 투앙리 장원의 아름다운 화단 패턴을 표현해 특별함을 더했다. 5g 9만9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윤자경*

EGF 울로지 뉴부스터 미니 피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40대 에디터에게 완벽한 디어시시 기법 세 손에 쥐어지는 작은 사이즈로 바, 입자, 필자 주름 등 미세한 부분을 본인에게 맞는 전기 자극으로 관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항에 있는 엘엘의 유호 성분을 피부 깊이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기인데, 퇴근 후 책을 읽으면서, 또는 TV를 보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만5천원. 문의 1644-1048. *by 에디터 장라윤*

다이드라세나 캄아제인 바디습 보디 제품은 전여감 없이 보드득보드득하게 씻는 것을 선호하는 편. 그렇기에 이 보디 워시가 아주 만족스러웠다. 피부 보습력을 높이는 글루코노락톤을 함유해서인지 노폐물이 말끔히 씻겨도 건조하지는 않은 딱 좋은 사용감. 과하지 않고 은은한 향까지 더해져 기분 좋은 샤워가 가능하다. 300ml 3만4천원. 문의 070-4418-3256. *by 에디터 신정민*

다비네스 모이스춰이징 밤 얼굴부터 헤어와 보디까지 건조한 겨울철 한층에 부티 케어할 수 있는 올인원 아이템이다. 얼굴과 헤어에 도포 후 물로 헹구거나 수분 보호막이 탄탄하게 씌워져 탁월한 보습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샤워 후 보디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풍부한 영양분을 선사한다. 호호바 씨 오일, 헤비바키 씨 오일, 사비버 타를 함유했다. 150ml 4만3천원. 문의 1644-4430. *by 에디터 윤자경*

페이드 누드 파들 울퉁불퉁과 따뜻한 벤조과 신들우드를 중심으로 아미노산이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향으로 이 계절과 잘 어울린다. 관능적인 면서도 센수얼하게 이루어지는 고급스러운 진향이 일품. 특히 올리데이 피어나 연말 모임에 부인고 나가고 싶은 향이다. 100ml 1만9천원. 문의 02-6956-0053. *by 에디터 신정민*

래쉬케어 미 미유 유 권 물속에 풍당 날라지자 욕실에 은은하게 퍼지는 스위트와 일드 오렌지 향기가 자전 하루를 리프레시해준다. 무엇보다 유가 베타를 함유해 한스욕 후 한결 부드럽워진 피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일러한 생강 파우더가 온몸을 더욱 따뜻하게 해준다. 80g 1만5천원. 문의 1644-2357. *by 에디터 윤자경*



SHOWROOM

팬탈리온스

샤넬 뷰티

팬탈리온스 2023 크리스마스 컬렉션 영국 로열 나치 퍼퓸 하우스 팬탈리온스가 브랜드 베스트셀러 제품을 담은 2023 크리스마스 컬렉션을 시즌 한정 패키지로 출시했다. 매해 선보이는 이번 컬렉션은 올해 동화 같은 장난감 가게를 테마로 선보였다. 기프트 아이템으로 네일 컬러를 담은 르 베르니, 루주 알루르 라고, 그리고 골드 테두리 장식의 리미티드 에디션 케이스로 선 보인 루주 알루르 렉스트라까지 만날 수 있다. 문의 080-363-5454

샤넬 뷰티 2023 올리데이 메이크업 컬렉션 샤넬 뷰티에서 화려한 시퀀 장수에 기호적인 이르데코 스타일을 담아 빛나는 올리데이 메이크업 컬렉션을 출시했다. 기쁘고 열렬한 샤넬의 감각적인 드레스에 수놓은 시퀀처럼 반짝이는 아이샤도 팔레트부터 파우더, 대체로운 네일 컬러를 담은 르 베르니, 루주 알루르 라고, 그리고 골드 테두리 장식의 리미티드 에디션 케이스로 선 보인 루주 알루르 렉스트라까지 만날 수 있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드레이크스

티파니

드레이크스 2023 F/W 올리데이 컬렉션 토스가 2023 F/W 올리데이 시즌을 맞아 아이코닉한 아이템과 함께한 토스 올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였다. 매종의 시그니처 아이템 T 타이밍 백과 고노노 바들은 올리데이 시즌을 맞아 시어링 소재를 사용한 새로운 버전으로 선보이며, 윈터 고노노 부츠와 키트 로퍼 등 토스만의 감성을 담은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문의 02-3438-6008

폴라스Choice

드레이크스

드레이크스 by 폴라윤지

드레이크스 by 폴라윤지 드레이크스의 파스트 유얼 스카프를 12월 올리데이 시즌 포인트 아이템으로 추천한다. 귀여운 유니콘이 포인트인 귀공스러운 일러스트레이션에 그린 컬러 태슬을 대한 실트 소재 스카프로,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38-6142

폴라드 프라이빗스피어 프라다가 반짝이는 미지의 세계를 운영하는 듯한 콘셉트를 담은 2023 올리데이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김태리, 마야호크, 엠스 이리드스, 루이스 파르티지가 함께했으며, 상상 속 목차를 이동할 수 있는 수인인 비틀 안에서 프라다 아이템과 광활한 우주를 여행하는 모습을 담았다. 문의 02-3442-1830

BEAUTY

FASHION

다이아니

에르메스 워치

티파니

블라기리

타사키

다이아니 미르가타 컬렉션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브랜드 다이아니가 특별한 올리데이 기프트 아이템으로 미르가타 컬렉션을 제안한다. 18세기 이탈리아 사보이 왕가 미르가타 여왕에게 영감받아 완성한 마르가타 컬렉션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표현한 컬러를 한 쟁점과 다이아몬드의 정교한 세팅이 조화를 이룬다. 문의 02-515-1924

티파니 2023 데인저 호른 올리데이 컬렉션 연말을 맞아 티파니의 시그니처 컬렉션 데인저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따스함과 행복으로 가득한 올리데이 분위기를 담아 캐주얼한 사이즈의 데인저 호른 번드 팬던트와 싱글 이어링으로 구성했다. 기존 데인저 호른 시리즈와 함께 레이아웃해 스타일링하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542-6622

티파니 국내 공식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1백 86년 역사의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가 국내 공식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이번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는 비대면 고객과 접점을 늘리려 오프라인 부티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일파렉 팬던트, 티스마일 미니 팬던트 등 이소클루시브 제품도 함께 선보인다. 문의 02-6250-8620

에르메스 워치 아노 레 폴리 뒤 씨엘 1978년 에르메스 디자이너 앙리 도라니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아노 레 폴리 뒤 씨엘은 품을 한스도 만들고자 했던 인간이 마침내 하늘 위에서 향하는 순간을 담았다. 아노 레 폴리 뒤 씨엘을 비롯해 에르메스의 장인 장미르가 디자인한 시계와 시계 케이스를 만날 수 있다. 문의 02-3143-9486

폴라드 투게터 컬렉션 우정, 우애 등 수많은 사랑의 형태가 지닌 아름다움을 담은 폴라드 투게터. 컬렉션 시그니처 포인트인 2개의 타원은 링크로 연결되어 단합과 유대감을 상징한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소재의 팬던트와 링크로 구성되어, 폴라드 토 공식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pomellato.com)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6105-2120

시몬스

SIMMONS End of Year PROMOTION

시몬스 연말 감사제

부기부

부기부 부기부 드래곤플레이 부기부에서 아이와 함께 하는 겨울 외출을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청초형 스트roller '부기부 드래곤플레이'를 소개한다. 부기부 스탠드-업 폴딩 기능으로 선 상태에서 하인을 굽히지 않고 한 손으로 스트roller를 접고 펼 수 있으며, 배시넷과 시트를 분리할 필요가 없어 기능성은 물론 간편한 사용까지 더했다. 또 스트랩을 내장해 이동 시 어깨에 메가 나트루처처럼 끌 수 있다. 문의 1577-0680

시몬스 엔드 오브 이어 프로모션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올해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엔드 오브 이어 (End of Year)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특정 매트리스 최대 20% 할인, 신제품 프레임과 패더, 러스, 베딩 제품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프로모션 기간 중 브랜드원 이상 구매 시 구입 모델과 동일한 사이즈의 매트리스 커버 1종을 선착순으로 무료 증정한다. 문의 1899-8182

JEWEL & WATCH

LIFESTYLE



[louisvuitton.com](https://www.louisvuitton.com)

LOUIS VUITTON